

#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 이 일 겁\*

### 〈목 차〉

- I. 머리말
- II. 연해읍성 평면형태의 분류
- III. 연해읍성 평면형태의 특징
- IV. 연해읍성 규모와 호구수의 비교
- V. 맺음말

### 국문요약

연해읍성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조선시대 이전시기의 치소성에 해당하는 마산 회원현성, 부산 당감동성, 울주 화산리성, 동래고읍성 등의 성곽들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읍성의 평면형태는 크게 방형, 원형, 주형, 제형의 4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입지유형에 있어서 방형의 경우는 모두 평지성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제형과 원형의 경우에는 평산성으로 축조되어 있고, 주형의 경우에도 역시 대부분 평산성으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남해안 연해읍성의 경우 제형의 평면형태로 축조된 읍성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성둘레 역시 내륙읍성 및 여타지역의 읍성에 비해 작다. 오히려 주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는 내륙지역 읍성과 여타지방의 읍성의 경우에는 전시대의 토성 내지 석성을 재수축하여 사용하는 토성→석축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체성부를 확대 및 개축한 것인데 반해 연해읍성의 경우에는 조선의 개국 이후 축조되는 신축 읍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때 신축읍성의 경우에는 입지를 고려한 지형조건에 더하여 유교적 신분질서의 확립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치권의 확립 및 군사방어체계의 개편에 따른 행정단위의 위계질서에 맞는 읍성 체성부 평면형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풍수지리사상에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의한 읍성의 취약한 풍수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읍성 평면형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안 연해읍성의 경우는 제형이 가장 빠른 평면형태로 확인되고 아울러 주형 역시 동시기에 축조되고 있으며 조선 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제형과 주형이 혼용되어 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남해안 연해읍성은 상위행정단위에 속하는 읍성의 평면형태가 주형으로 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에 연해읍성 축조에는 주형이 유행하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읍성 평면형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는 해당성곽에 입보하여 농성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인력에 따라 성곽의 평면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연해읍성 가운데 30,000명 이상의 호구수를 가진 군현에 축조된 읍성 평면형태는 주형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해읍성은 평면형태의 비교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시기의 여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단일한 축성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남해안 연해지역이 대왜구 최일선 전략적 거점으로서 그 군사적인 기능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엄격한 축성관리를 받으며 일관되게 축성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지형조건에 따라 읍성 평면형태가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규식에 맞는 지형을 심정하여 정해진 읍성형태 가운데서 선택하여 읍성을 축조케한 제식적인 규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연해읍성, 방형, 원형, 주형, 제형, 평면형태, 풍수지리, 호구수

---

## I. 머리말

성곽을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갯’, 혹은 ‘재’가 있다.<sup>1)</sup> 城郭이라는 말은 ‘城’ 과 ‘郭’의 한자가 합쳐진 말로 中國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이 ‘城’은 土와 成으로 구성된 글자로 中國에서는 황하 유역의 황토를 가지고 일찍부터 거푸집을 만들어 흙을 겹겹이 넣으면서 축조하는 울타리 보호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나라를 의미하는 國은 성벽을 뜻하는 울타리(□)와 그 속에 사는 구(口), 즉 과(戈)라는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는 조직을 의미하였다.<sup>2)</sup> 이 가운데 울타리(□)인 성벽은 당시의 都市國家 혹은 城邑國家를 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당대에는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울타리는 木柵, 壘, 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의 평면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平面形態가 中國의 경우는 이른 시기부터 변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方形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方形으로 축조된 城郭은 版築으로 축조된 土城이며 입지적인 조건에 의하면 평지에 주로 축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城郭은 입지적인 조건에 따르면 山城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平面形態의 경우 지형에 따라 축조하여 不定形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邑城의 平面形態 역시 지형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방형 및 원형보다 부정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沈正輔<sup>3)</sup>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통용되고 있다. 특히 沈正輔의 견해는 忠淸道 지역에 산재하는 邑城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기된 주장이나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한 邑城의 형태도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朝鮮時代 邑城의 平面形態의 分類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원형, 방형, 부정형으로 나누고, 좀더 세분하여 원형, 타원형, 장방형, 방형, 부정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古地圖에 나타나는 평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古地圖에 나타난 양상의 경우는 실제 邑城의 형태와는 거리가 먼 당시 사람들의 邑城에 대한 관점을 나타낸 것으로 古地圖에 그려진

1) 기다랗게 돌을 쌓아 올린 담(제주 방언)

2) 차용걸, 2003, 『京畿道の 城郭』, 기전문화예술총서13, 경기문화재단, 14쪽.

3) 沈正輔, 1995, 『韓國 邑城의 研究』, 학연문화사.

원형이나 장방형 형태로 邑城 平面形態가 축조되어 일치하는 邑城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는 邑城의 平面形態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분류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考古學的 조사에서 확인되는 邑城 平面形態에 따라 나는 것은 실제 측량된 城郭의 平面形態로 나는 것이라 그 자료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이나 통계수치의 적용 없이 직감적인 분류안을 선택하여 전형적인 원형이나 방형을 제외한 모든 邑城의 平面形態를 부정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세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부정형의 경우에는 방형과 장방형에 가까운 것과 원형과 타원형에 가까운 것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고 더구나 주형, 제형 등으로 좀더 세분할 수 있다. 특히 부정형 平面形態가 대부분의 城郭에 적용된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최근 조사된 南海岸 地域 沿海邑城의 경우에는 平面形態가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산성축조에 따른 대부분의 平面形態를 부정형의 平面形態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沿海邑城 平面形態에서는 방형<sup>4)</sup>, 원형, 주형, 제형의 4가지 형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조사되는 南海岸 地域의 城郭 가운데 朝鮮時代 營鎮堡城의 경우 역시 平面形態가 일반적인 원형과 방형, 부정형의 분류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3가지 내외의 분류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南海岸 沿海邑城의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南海岸 沿海邑城의 平面形態에 대하여 분류를 시도한 후, 沿海邑城 平面形態의 시원 및 平面形態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여 沿海邑城 平面形態의 변화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II. 연해읍성 평면형태의 분류

南海岸 沿海邑城의 특징과 그 축조양상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는 沿海邑城의 平面形態를 먼저 형식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朝

4)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특히 방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 성곽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방형계 성곽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곽의 기원과 계통문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鮮時代 邑城의 平面形態를 분류한 기준안을 살펴보고 沿海邑城을 平面形態의 倂년적 근거에 의해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금까지 沿海邑城의 平面形態에 대해서 기존 연구자들의 분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평면형태 기준 분류안

분류자	분류방법	유형	형식	비고
최원석	지형조건		방형, 부정형	
장재훈	지형조건	해안성	원형, 방형	
		내륙성	방형	
김명철	평면형태	읍성	방형, 원형, 타원형, 부정형	
		진성		
김한기	평면형태	읍성	원형, 방형, 부정형	읍성평면형태는 풍수의 영향에 따라 변함.
이상구	고지도의 성곽형태		원형, 방형	고지도에 나타나는 성곽형태로 분류
현남주	지형조건	산성	타원형, 卍자형, 마름쇠형	삼태기형의 경우 구릉정상부와 평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
		평지성	방형	
		평산성	삼태기형	
유재춘		읍성	방형, 부정형	군사전략에 따라 평면형태 결정
이재혁	지형조건	읍성	원형, 방형, 자유형	방형중에 장방형이 대부분
나동욱		읍성	방형, 말각방형	자연지세에 따라 타원형의 경향을 보임
		진성	직선형	방형과 직선형 성벽은 평지토성 및 중국성제의 영향으로 판단.
차용걸	평면형태	폐합된 것	방형, 원형, 반월형, 부정형	개방된 것은 장성, 차단성, 행성으로 구분
심정보	평면형태		방형, 원형, 타원형, 삼태기형, 부정형	읍성이 지형조건을 이용함으로써 방형 및 원형보다는 부정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손영식	평면형태	폐합여부	방형, 원형, 부정형	邑城의 평면형태는 方形, 圓形, 自然地勢形 조선시대 읍성의 주류가 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정형성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파악.
		선형상 구분	곡선형, 직선형, 혼합형	
		기타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朝鮮時代 邑城의 平面形態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방형과 원형으로 나누는 것에 지형적인 조건에 기인한다고 하여 부정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分類案은 정확한 型式分類의 진행 없이 직관적인 분류안이나 古地圖에 수록된 理想化된 邑城의 형태를 세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 型式分類라 명명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 각종 조사에서 확인된 邑城의 平面形態를 바탕으로 필자 나름대로의 沿海邑城 平面形態에 대한 試案을 작성해서 도표로서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표2>와 같다. 여기에서 필자는 沿海邑城의 平面形態를 크게 방형, 원형, 주형, 제형의 4형식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첫 번째 방형 평면형태를 I형식으로 하고 다시 I형식은 體城部의 장축길이:단축길이를 나누었을 때 1:1.1이하를 정방형(I-A)으로 1:1.1이상을 장방형(I-B)로 세분하였다. 둘째, 원형 평면형태를 II형식이라 하고 體城部의 네 지점에 임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원의 가운데를 직교한 선 가운데 긴지름과 짧은 지름의 차가 큰 것을 II-A식, 작은 것을 II-B식으로 세분하였다. 셋째로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양상인 주형은 III형식으로 이 주형은 장축의 한쪽 정점은 비교적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형태인데 반해 대칭되는 정점의 경우는 직선형 내지는 말각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정점이 연결된 정직선을 기준으로 돌출한 정점의 너비가 대칭되는 정점의 너비의 1/2를 넘지 않은 것을 III-A식으로 1/2를 넘는 것을 III-B식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제형은 IV형식으로 IV-A식과 IV-B

<표 2> 남해안 연해읍성의 평면형태 분류

분류	유형	형식	소형식
읍 성	방형	I-A	
		I-B	
	원형	II-A	
		II-B	
	주형	III-A	
		III-B	
제형	IV-A		IV-A-1
			IV-A-2
			IV-A-3
	IV-B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體城部の 4面 가운데 한면의 돌출로 인하여 생겨난 굴절된 지점이 직각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어 마치 평면형태가 “L”형을 이루는 것을 IV-A식이라 하고 IV-B식은 IV-A식에 비해 돌출된 지점이 점차 사선화되어 종래에는 사다리꼴 즉 진정한 제형으로 위곽평면형태가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IV-A식은 다시 IV-A-1,2,3식의 소형식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 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방형(1식)

방형은 朝鮮時代 이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城郭의 平面形態로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방형의 平面形態가 나타나는 것이 『周禮考工記』의 영향에 의한 중국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sup>5)</sup>

우리나라의 경우 三國時代 이전 한강이북 지역의 초기 土城들을 살펴보면 대략 방형의 평면이거나 방형에 가까운 원형의 부정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형의 경우는 대체로 남북방향보다는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戰國時代에서 漢代에 걸쳐 요동반도, 열하, 요녕성 지역에 축조된 土城 19개소 가운데 3개소만 원형 내지 불규칙한 반원형이고 나머지 16개소의 土城들이 방형이거나 장방형의 평면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요녕성 지역의 것들은 동서로 긴 장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6)</sup>

이처럼 방형 평면형태의 경우에는 三國時代 이전부터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に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城郭의 평면형태로서 南海岸地域 沿海邑城의 축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남해안지역에서 방형의 평면형태로 축조된 邑城의 경우는 경주읍성, 김해읍성, 남해읍성, 웅천읍성, 언양읍성 등이고 충청도 지역의 경우는 남포읍성, 전라도의 경우는 남원읍성, 낙안읍성, 제주도의 경우는 대정읍성, 정의읍성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1) I-A식

5) 최원석, 2004, 앞의 논문.

6) 차용걸, 1996, 『百濟 城郭의 比較 研究 試論』, 百濟論叢 第5輯, (財)百濟文化開發研究院, 247쪽.

沿海邑城으로 평면형태가 정방형인 I-A식인 것은 4개소로서 방형의 平面形態를 가진 邑城 가운데 80%에 해당한다. 원래 4面의 體城部 길이가 동일하여야 하지만 실제 體城部의 각 城壁의 길이는 남북벽의 길이보다 동서벽의 길이가 약간 더 긴 형태이다. 이 유형으로 경주읍성, 김해읍성, 남해읍성, 안양읍성을 들 수 있다. 충청도의 남포읍성도 이 유형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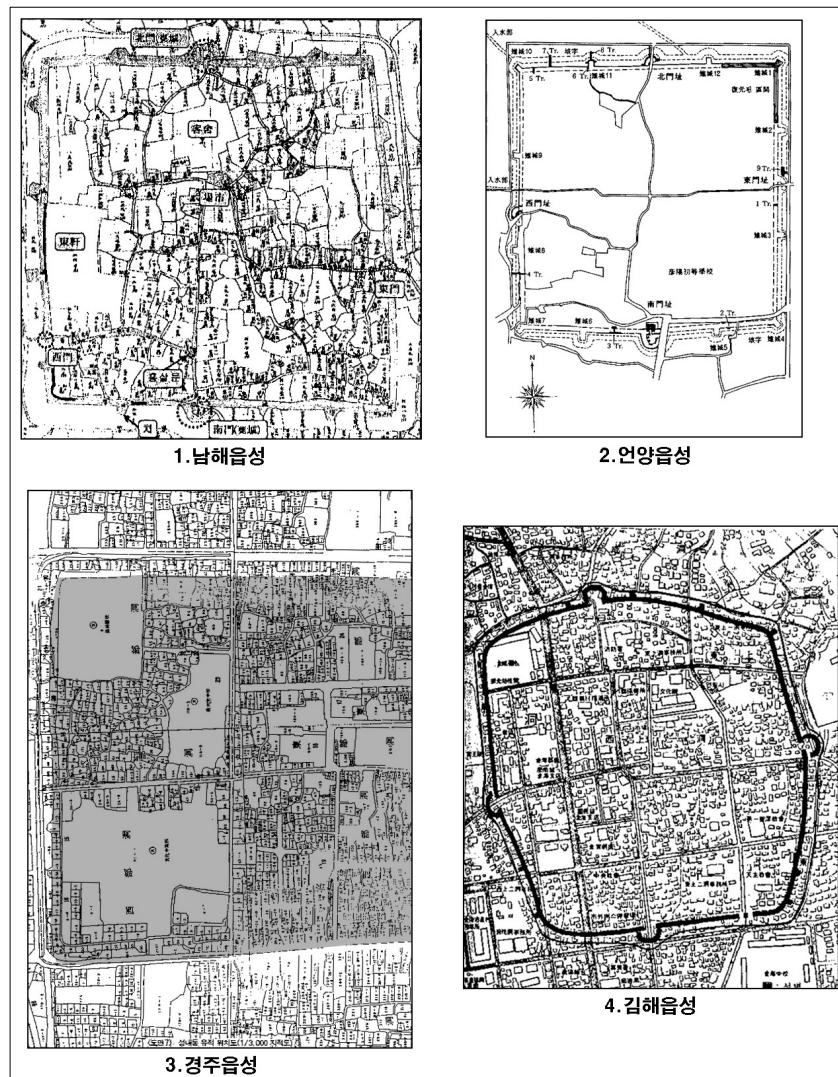


圖1. 방형 I-A식

<표 3> 읍성 방형 I 식 현황

읍성명	축조 년대	성둘레	성높이	동벽길이	서벽 길이	남벽 길이	북벽 길이	문지	치성	형식
경주읍성	1378년	4,075척	11.6척	624m	612m	570m	606m	4	29	I-A
김해읍성	1434년	4,418척	13척	500m	500m	450m	500m	4	20	I-A
남해읍성	1439년	2,876척	10척	336m	325m	331m	314m	4	12	I-A
언양읍성	1500년	3,064척	13척	374.4m	376.8m	372m	376.8m	4	12	I-A
웅천읍성	1434년	3,514척	15척	342m	323m	225m	188m	4	6	I-B
함안읍성	1555년	5,160척	13척	645m	670m	530m	370m	3	10	I-B
남포읍성	1445년	2,476척	12척	190m	230m	195m	200m	3	5	I-A
정의읍성	1423년	2,986척	13척	140m	140m	160m	160m	3	9	I-B
대정읍성	1416년	2,647척	28척	.	.	.	.	3	6	I-B

2) I-B식

沿海邑城으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I-B식인 것은 1개소로서 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 가운데 10%에 해당한다.

이 유형으로는 웅천읍성이 해당되는데 體城部 전체 길이가 미터 환산치 1,078m로서 남북의 길이가 동서의 길이보다 동벽의 경우 117m, 서벽의 경우 172m 가량 더 길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평지읍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함안읍성과 제주도의 정의읍성, 대정읍성이 이 유형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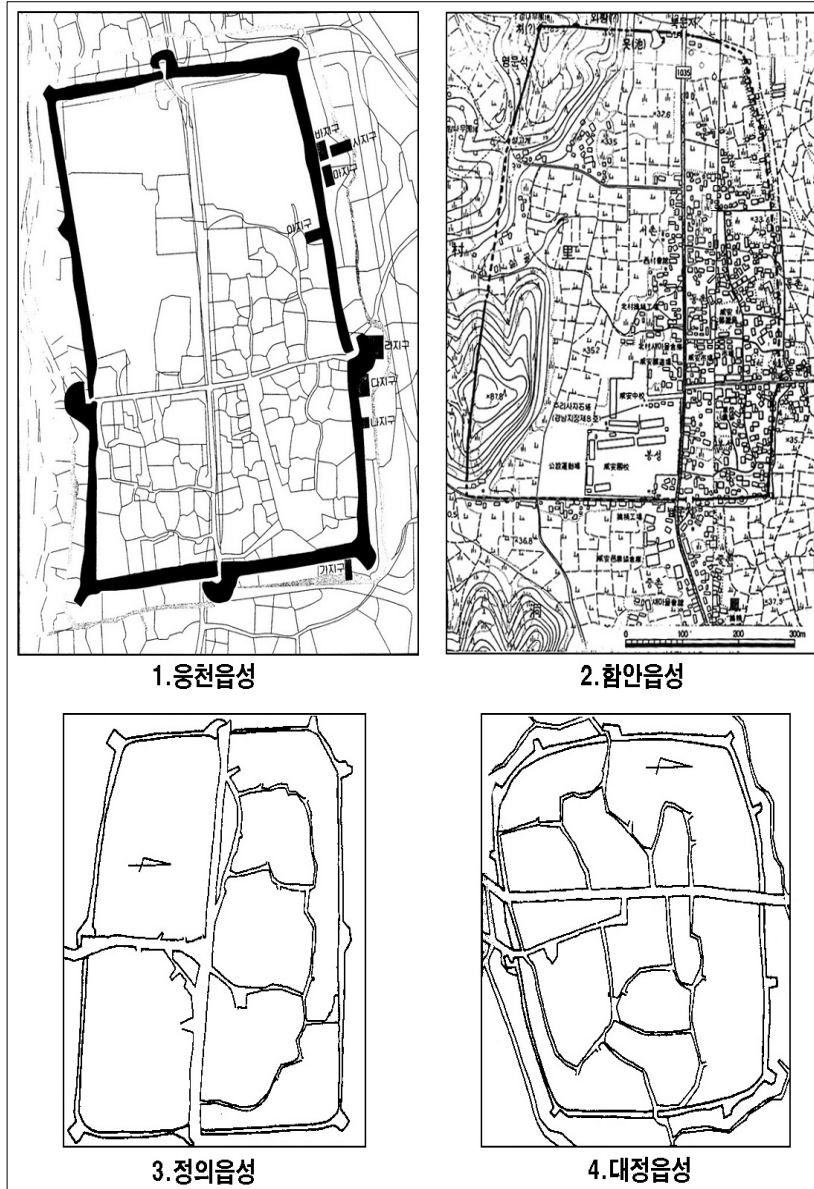


圖 2. 방형 I-B식

## 2. 원형(II식)

南海岸地域 沿海邑城 가운데 원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정형화된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읍성 보다 타원에 가까운 평면형태를 나타내는 邑城이 대부분이다.

南海岸 沿海邑城으로 원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로 축조된 것은 前期 東萊邑城 1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沿海邑城 가운데 원형 평면형태를 갖춘 邑城은 평지성과 산성형의 邑城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산성형 邑城에서만 1개소가 확인될 뿐이다. 오히려 정형화된 원형 平面形態를 가진 邑城은 충청도의 당진읍성, 태안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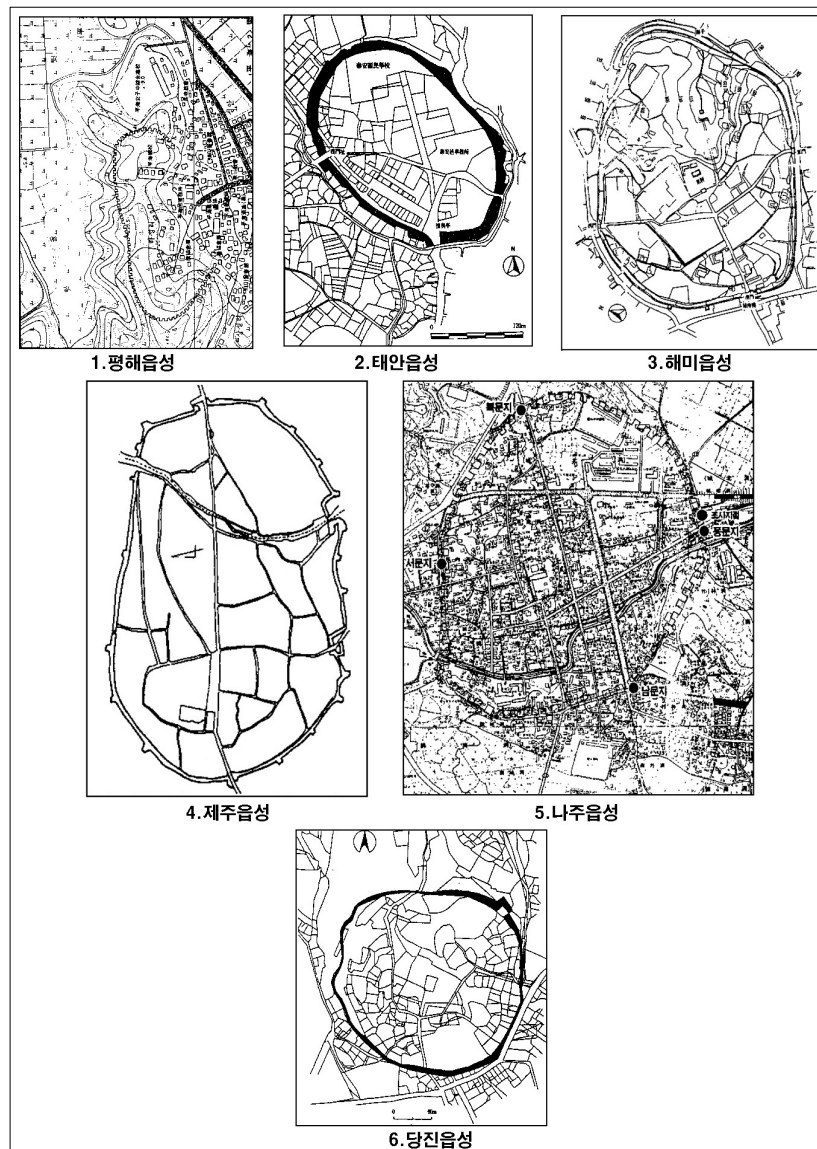


圖 3. 원형 II-A(1~5) · B식(6)

전라도의 나주읍성, 제주도의 제주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원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은 원형의 體城部의 네 지점에 임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원의 가운데를 직교한 선 가운데 긴지름과 짧은 지름의 차가 1:1.5이상 큰 것을 II-A식, 작은 것을 II-B식으로 세분하였다.

#### 1) II-A식

II-A식은 후술할 주형의 III-A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II-A식이 장축과 단축을 이루는 대칭점이 있어 전체적인 만곡도가 비슷한 반면에 III-A식은 장축의 한쪽 정점은 비교적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형태인데 반해 대칭되는 지점의 경우는 직선형 내지는 말각형을 띠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

沿海邑城에서 이 형식의 邑城으로는 평해읍성(1357년 초축)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충청도 해미읍성(1418년), 태안읍성(1417년), 전라도 나주읍성(1404년), 제주읍성(1411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2) II-B식

II-B식은 평면위의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언제나 일정한 점의 자취로 지름의 차가 없거나 작다. 이 II-B식은 연해읍성에서는 前期 東萊邑城만이 추정된다. 또한 충청도의 당진읍성(1427년)이 여기에 해당된다할 수 있다. 이 당진읍성의 경우는 당진읍내에 위치하는 평지성으로서 읍내의 서쪽을 흐르는 당진천을 자연해자로 이용하고 있다.

### 3. 주형(III식)

南海岸地域의 沿海邑城을 비롯하여 內陸邑城 및 營鎭堡城 등의 城郭 평면형태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분류되지 않는 다소 특이한 평면형태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형 평면형태이다. 이 주형 평면형태는 기존에는 부정형과 타원형으로 분류되던 것들로서 그 평면형태가 배모양을 닮았는데 따라 명명한 형식이다.

분류기준에 있어서도 타원형의 경우에는 원형을 기준으로 돌출되는 양지점의 대칭점을 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반면에 주형은 장축의 한쪽 정점은 비교적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형태인데 반해 대칭되는 정점의 경우는 직선형 내지는 말각형을 띠고 있는데다 흡사 우리나라 韓船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앞은 좁고 뒤는 넓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두 정점이 연결된 정직선을 기준으로 돌출한 정점의 너비가 대칭

되는 정점의 너비의 1/2를 넘지 않은 것을 Ⅲ-A식으로 1/2를 넘는 것을 Ⅲ-B식으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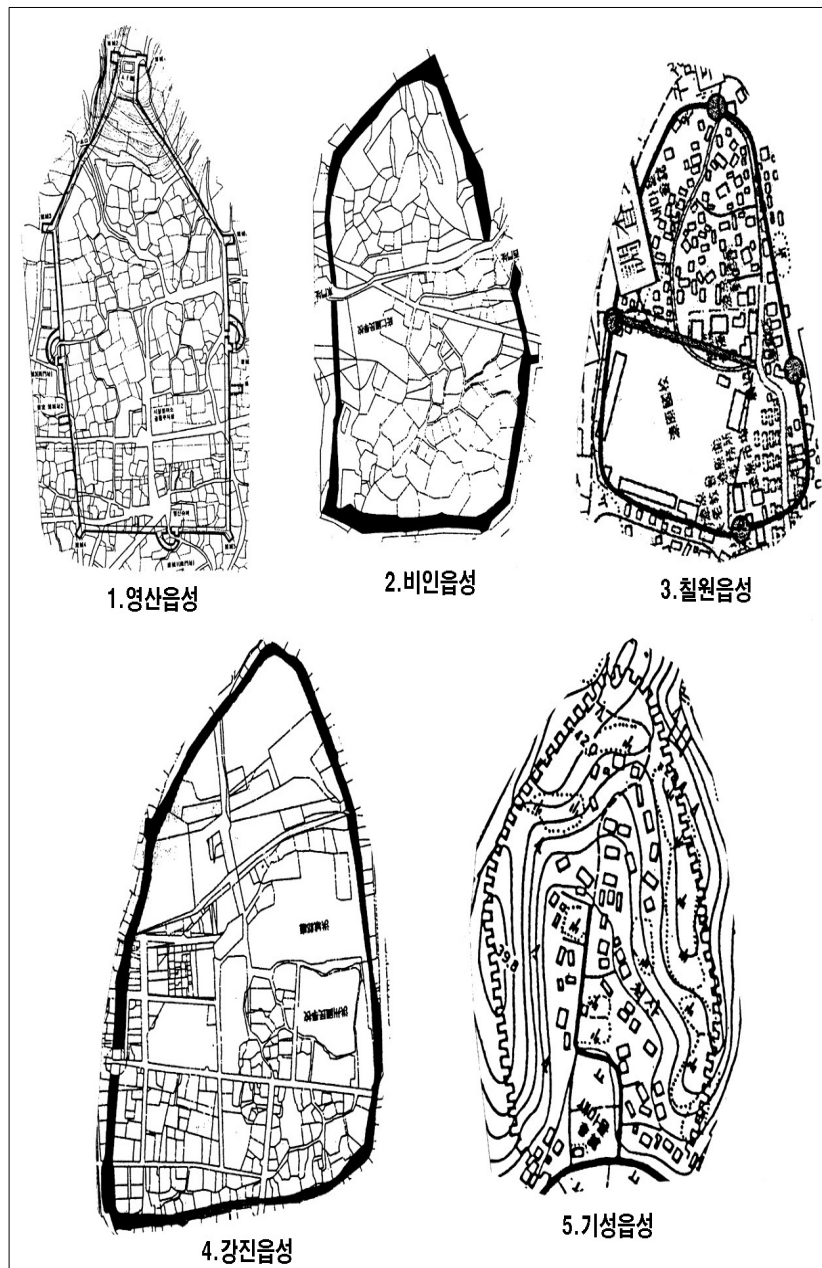


圖 4. 주형Ⅲ-A식

### 1) III-A식

III-A식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內陸邑城인 영산읍성(1477년)이다. 이 영산읍성의 경우는 북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 태자각을 기준으로 좌우에 城隅를 배치하고 좌우 능선을 따라 體城部가 내려오다가 평지에 이르러서는 직선을 이루면서 남쪽에 이르러서는 다시 좁아지는 구조로 역시 전형적인 배모양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형 평면형태는 전체적으로 한쪽 부분을 구릉정상이나 돌출된 지형에 體城部가 축조되어 있는 형태로 인해 지형조건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형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축조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타원형 내지 부정형으로 분류되는 평면형태 가운데 타원형의 경우는 장축과 단축을 이루는 대칭점이 있는 반면에 영산읍성을 비롯한 주형 III-A식인 邑城들의 경우는 한쪽 정점은 비교적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형태인데 반해 대칭되는 지점의 경우는 직선형 내지는 말각형을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타원형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邑城들로서는 칠원읍성(1492년), 기성읍성이 있고 南海岸 연해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홍주읍성(1451년 이전), 비인읍성(1430년), 강진읍성 등이 있다. 또한 주형 III-A식 평면형태는 영진보성에서도 확인되는데 개운포성지(1459년), 소을비포진성(1481년 이전), 금단곶보(1485년), 가배량성(1488년) 등이 있다.

### 2) III-B식

III-B식의 대표적인 곳이 고현성이다. 고현성은 남북벽이 둥글게 만곡하고 서벽에 비해 동벽이 현저하게 좁아지는 전형적인 韓船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邑城 좌우에 위치한 자연하천을 垓子로 이용하기 위해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당시 하나의 축성패턴으로 주형 형태의 평면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II-B식의 전형으로서는 南海岸地域에서는 평면 장타원형의 土城 治所城으로 축조된 마산 회원현성이 朝鮮時代 전 단계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상을 염두에 두고 邑城들을 살펴보면 울산 병영성(1417년), 사등성(1426년), 고성읍성(1448년) 등이 이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또한 경상좌수영성도 여기에 해당한다.

ㄱ 沈奉謹은 1991년 앞의 글에서 이러한 古縣邑城 平面圍郭形態에 주목하여 舟와 관련한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 새삼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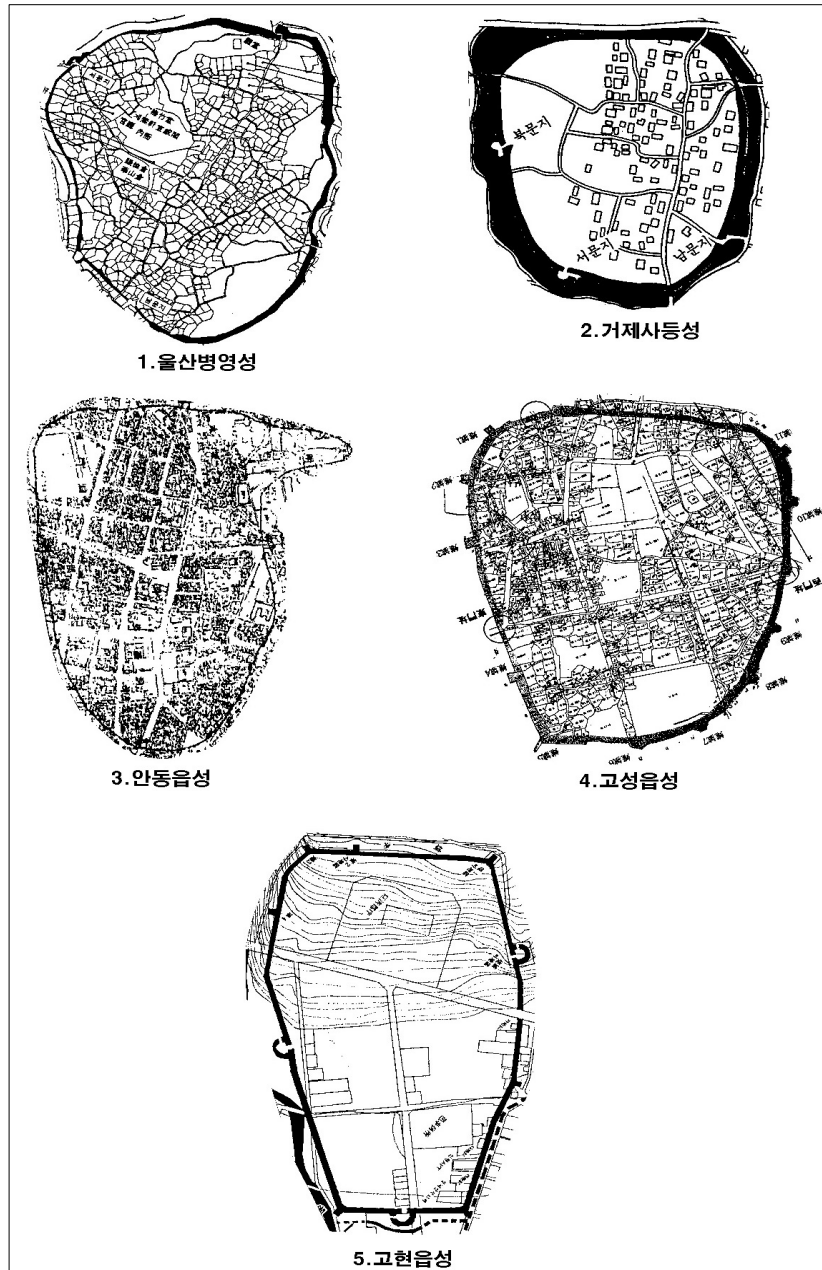


圖 5. 주형 III-B식

#### 4. 제형(IV식)

南海岸 沿海地域의 朝鮮前期에 신축된 邑城의 형태와 기존의 고읍성 내지 산성을 개축하여 축조한 邑城의 형태를 년대별로 분류하여 볼 때 土城의 형태에서 개축된 邑城과 신축된 邑城 가운데 석재로 축조된 城郭의 평면형태에는 일정한 형태변화가 확인된다. 즉 高麗時代를 포함한 그 이전에 축조된 土城의 경우, 土城에서 石城으로 개축되는 평면형태가 제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상이고 이러한 제형은 高麗時代의 土城인 〈形→梯形의 형태로 점차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형은 통상 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오각형 등 다각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서 다소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부분적인 차이로 인해 너무 분류가 세분되는 번잡함을 피하고 실제 형식분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이 제형은 크게 IV-A와 IV-B 형식으로 나뉜다.

##### 1) IV-A식

IV-A식은 體城部의 4面 가운데 한쪽면이 돌출되는 형태로 마치 평면형태가 “L”형으로 축조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沿海邑城은 하동읍성, 장기읍성이고 이외에도 진주 축석성, 청도읍성, 강릉읍성, 영동읍성, 안동읍성(1592년)이 있으며 영천읍성이 장방형으로 변형되는 형식으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유형은 전시대의 版築土城으로 축조된 治所城의 평면형태가 朝鮮時代에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후술할 IV-B식으로 점차 변형되어 간다.

##### 2) IV-B식

IV-B식은 IV-A식이 體城部의 돌출로 인하여 생겨난 굴절된 지점이 직각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던 것에 비해 돌출된 지점이 점차 사선화되어 종래에는 사다리꼴 즉 진정한 제형으로 평면형태가 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沿海邑城으로서는 오량성지가 있고 內陸邑城의 경우에는 성주읍성, 밀양읍성 등이 있다. 또한 沿海邑城 이외의 지역에서는 충청도 한산읍성, 면천읍성, 전라도 광주읍성 등이 해당하고 營鎮堡城의 경우에는 서천 장암진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IV-B식은 전시대인 高麗時代와 三國時代 축조된 화산리성지와 동래고읍성의 평면형태에서 이 지역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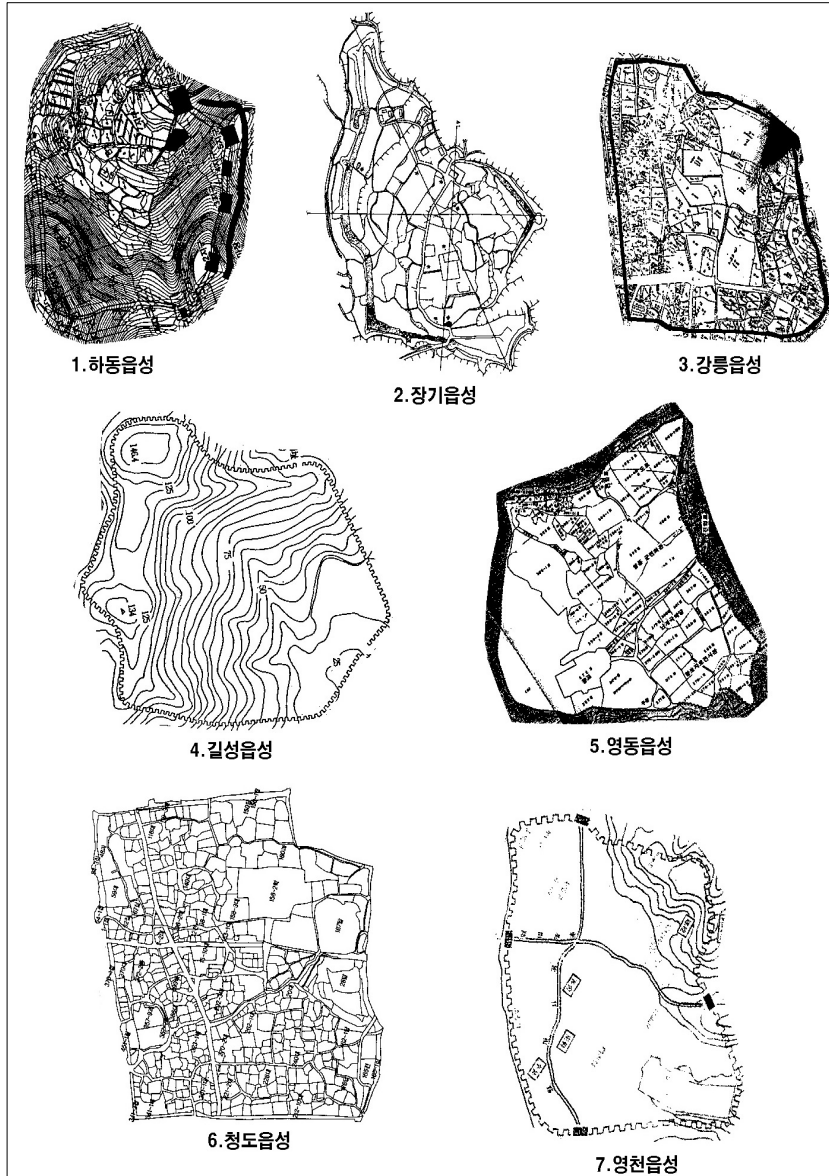


圖 6. 제형 IV-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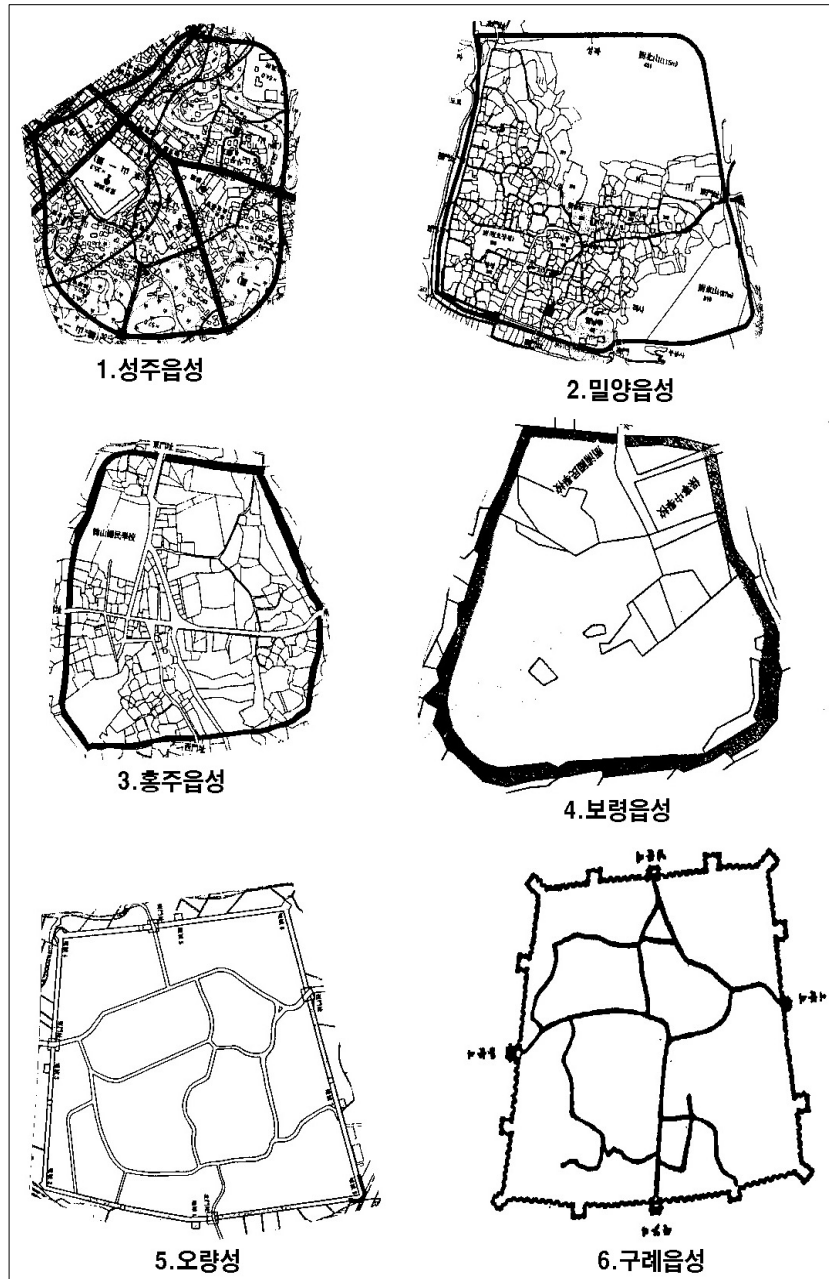


圖 7. 제형IV-B식

### Ⅲ. 연해읍성 평면형태의 특징

朝鮮 前期에 南海岸地域에 축조된 沿海邑城의 평면형태의 변화를 파악할 때, 그 전시대의 治所城의 평면형태와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연구방법의 하나 일 것이다. 특히 南海岸 沿海邑城이 축조되기 이전에 축조된 마산 회원현성, 부산 당감동성, 울주 화산리성, 동래고읍성의 경우는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와 朝鮮 初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의 治所城으로 사용된 것으로 邑城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전시기의 治所城에 해당하는 위의 城郭들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沿海邑城의 평면형태별 분류를 기준으로 각 평면형태의 특징과 축조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앞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형과 원형, 제형, 주형이다. 이 4가지 유형의 평면형태 비율을 살펴보면, 방형(I식)의 경우 전체 12개소 가운데 3개소로 25%에 해당하고, 원형(II식)은 8%인 1개소, 주형(III식)은 5개소로 42%, 마지막으로 제형(IV식)은 3개소로 25%에 해당한다. 먼저 제 I 식인 방형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城郭의 평면형태로서 沿海邑城의 경우에도 경주읍성, 김해읍성, 남해읍성, 웅천읍성 등과 언양읍성, 함안읍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築造時期와 體城部의 둘레와 상관없이 平地城의 유형으로 축조되거나 內陸邑城의 경우에는 平山城의 형태도 확인되고 있다. 방형 I-A식은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방형읍성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개소로 가장 빠른 축조 년대의 경우 경주읍성이 1378년에 초축된 것으로 이때 경주읍성은 土城이었으며 실제적으로 沿海地域에서 평면형태가 정방형으로 축조된 가장 빠른 邑城은 世宗16年(1434)에 축조된 김해읍성이다. 김해읍성은 이후에 축조된 남해읍성(1439년)과 언양읍성(1500년)과 더불어 南海岸 沿海地域에 축조된 대표적인 평지방형읍성에 해당한다. 이 김해읍성은 南海岸 沿海地域에서 축조되는 가장 빠른 단계의 방형 평면형태를 갖춘 읍성이나 같은 해에 축조된 장방형 I-B식인 웅천읍성을 고려하면 朝鮮時代 沿海邑城의 축조에 있어서는 I-A식이 I-B식보다 선행하는 평면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三國時代 以前 한강이북 지역의 초기 土城들을 살펴보면 대략 방형의 평면이거나 방형에 가까운 원형의 부정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형의 경우는 대체로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戰國時代에서 漢代에 걸쳐 中國 동북지역에 소재하는 土

城 가운데 요동반도, 열하, 요녕성 지역의 土城들 19개소 가운데 3개소만 원형 내지 불규칙한 반원형이고 나머지 16개소의 土城들이 방형이거나 장방형의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요녕성 지역의 것들은 장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sup>8)</sup> 朝鮮時代 이전 시기에 축조되는 방형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선행하는 형식이고 정방형이 그 뒤를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 開國 이후 太宗 16年과 世宗 5年에 각각 축조된 제주도의 대정읍성과 정의읍성의 경우에도 장방형인 I-B식인 것이고 보면, 南海岸地域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방형의 평면형태 역시 I-B식에서 I-A식의 형식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지만 中國의 요소로 축조된 것이라 파악하고 있는 정방형 I-A식이 장방형 I-B식에 비해 시기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충청도에 축조된 남포읍성의 경우에도 말각방형의 형태를 띤 정방형으로서 그 축조年代가 世宗 28年(1446)인 것과 南海岸의 內陸地域에 위치하는 연양읍성이 成宗朝의 축성논의를 거쳐 燕山君 6年에 정방형으로 완성되고 있는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成宗朝에 축조되는 거제도의 구울포진성의 경우에는 장방형 평면형태로 축조되어 있고, 宣祖 30年 이후 축조된 제주도 수산진성의 경우는 정방형으로 축조되어 있어 장방형→정방형으로의 형식변화가 있기 보다는 두 형식이 계속적인 공존을 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료가 나오길 기대한다. 다만 I-A식과 I-B식이 朝鮮時代 南海岸地域 沿海邑城의 축조에서는 시기차가 없이 동시기에 축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방형의 평면형태를 갖춘 平地邑城의 출현의 연유가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형의 평면형태를 갖춘 沿海邑城은 경상도 지역의 지방 행정 위계상 최상위에 속하는 都護府의 설치와 三浦의 하나로 日本과의 대외창구로서의 역할을 가진 체포에 인접하여 내외국인의 입출입이 활발한 지역적 특성과 南海岸地域 沿海의 內海와 外海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의 중심에 위치하는 점과 경부축선상에 위치하는 점이 고려된 축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방형 평면형태의 읍성 축조가 『周禮考工記』의 영향에 따른 축성양상으로 보는 역사지리학적 관점<sup>9)</sup>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II식인 원형 평면형태의 경우는 방형인 I 식과 더불어 朝鮮時代 古地

<sup>8)</sup> 차용걸, 1996, 위의 논문 247쪽.

<sup>9)</sup> 최원석, 2004, 『경상도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南海邑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6권 3호, 중국 주(周)나라 때의 주례(周禮)동관(冬官)편에 보면 고공기(考工記)에 도성의 체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匠人營國 方九里 方三門...' 라고 되어 있다.

圖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평면형태이다. 이 圓形은 이른 시기부터 축조되어 朝鮮時代까지 그 명맥이 유지된 것으로 『三國志 魏書』夫餘傳에 「...作城柵皆員 有似牢獄...」라고 하여 夫餘에 성곽에 축조되고 그 형태가 원형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三國時代와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 前期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원형 평면형태를 갖춘 城郭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 기하학적인 형태인 원형이나 방형의 경우 현실세계에서 축조가 양성화되기보다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邑城의 관념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 작업에 다수 사용되었던 것으로 실제 축성의 예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연유라고 하겠다. 특히 해안평야가 발달한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다소 많은 양이 확인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南海岸地域 沿海邑城의 축조에 있어서도 원형 평면형태를 갖춘 邑城의 경우는 동래읍성(1387년)과 평해읍성(1357년 초축)이 해당된다. 그러나 동래읍성은 주형의 형태와 유사점이 많아 전형적인 원형이라고 분류하기는 다소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이외에도 충청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邑城 역시 정형화된 원형 평면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고 장타원형의 형태에 가까우며 지형적으로 다소 굴절이 수반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邑城들은 주변의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인해 평면형태가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 평면형태를 갖춘 邑城은 충청도의 해미읍성(1418년), 태안읍성(1417년), 전라도 나주읍성(1404년), 제주읍성(1411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체로 그 초축년대 내지 축성년대가 高麗末과 朝鮮時代 太宗朝에 집중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高麗에서 朝鮮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축성에서 사용된 평면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沿海邑城의 경우에는 평산성이며 기타지역의 경우 나주읍성의 입지조건이 평산성임을 제외하면 모두 평지성으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당진읍성(1427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제Ⅱ식 원형 평면형태의 선후시기에 관해 살펴보면, Ⅱ식에 해당하는 각 邑城들의 지름을 측정하고 장축과 단축의 지름을 비교하여 지름의 길이차가 많은 Ⅱ-A식에 해당하는 邑城들이 지름의 길이차가 적은 Ⅱ-B식의 邑城에 비해서 邑城의 축조시기에 있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정형화된 원형 평면형태로의 축조가 장타원형의 축조보다는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유는 朝鮮 開國 初 이후 世宗朝를 중심으로 문물의 정비로 인해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건축에 있어서도 관념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축성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원형보다는 풍수와 지형, 방어도 등을 고려한 현실감 있는 축성을 지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제Ⅲ식인 주형 평면형태는 독특한 형식으로서 기존에는 삼태기형, 타원형, 삼각형,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부정형으로 명명되던 것이다.

제Ⅲ식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Ⅲ-A식의 대표적인 것이 영산읍성이고, 이외에도 기장읍성, 평해읍성, 칠원읍성, 강진읍성 등이 있고, Ⅲ-B식의 대표적인 沿海邑城은 고현성, 고성읍성, 울산병영성, 사등성, 안동읍성 등이 있다. 제Ⅲ식은 고현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 고현성에서 주형 평면형태가 사용된 이유는 지형적인 조건보다는 방어 시 전단을 좁혀서 사각을 줄여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덧붙여 이러한 주형 평면형태의 채택은 서쪽에서 내려오는 용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호안석축에 흡수하여 효과적인 담수를 통해 邑城의 방어를 강화하고자 한 垓子와 더불어 朝鮮前期 沿海邑城의 또다른 축조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현성 평면형태는 朝鮮 前期에 축조된 연해읍성의 경우, 體城部의 축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敵臺와 甕城 및 垓子 등의 부대시설의 설치가 나중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부족한 방어시설과 방어시 사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성벽 體城部의 축조시 적절한 만곡과 돌출을 실시하고 방어전면을 좁혀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韓船의 構造를 體城部의 축조형태에 차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후 이러한 韓船의 構造는 成宗朝를 거쳐 16世紀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기능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으로 퇴화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주형 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邑城 및 營鎮堡城에서는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주형 평면형태를 가진 城郭들은 太宗17年(1417)인 15世紀 初에서 출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世宗朝에서 成宗朝에 해당하는 15世紀말에 이르는 시기로 이때 당시에 유행한 平面形態의 하나였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제Ⅲ식인 주형 평면형태가 邑城築造에 사용된 연유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의 경우는 『世宗實錄』世宗 20年 1月 15日 更子條에 언급된 내용으로 그 內容을 살펴보면, 議政府에서 兵曹 程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沿邊 여러 口子에 돌 보루(堡壘)를 쌓을 때에도 敵臺·甕城 및 煙臺의 見樣을 修城典船色에게 圖本을 만들게 한 다음, 都節制使에게 내려 보내 이를 참고하고 쌓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라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에서 敵臺, 甕城 및 煙臺의 見樣을 修城典船色에게 圖本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修城典船色은 司手監<sup>10)</sup>의 다른 이름으로 이 司手監은 戰船의 建造와

修理를 포함한 전반을 담당하던 부서로서 世宗18年(1436)에 修城典船色으로 部署명이 改稱되는데 이후 船舶 뿐만 아니라 築城에 관련한 사무도 같이 관장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兵船의 건조와 수리를 통해 축적된 圖面과 技術力이 邑城의 築城圖面 작성에도 일정부분 반영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연유로 주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明宗朝에 건조된 板屋船이 운용되기 이전에 朝鮮前期에 사용된 우리나라 船舶인 韓船의 경우에는 전면이 좁고 후면이 넓은 형태로 좌우가 약간 만곡하여 볼록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고현성을 비롯한 상기에 언급한 邑城 및 營鎭堡城들의 형태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주형 평면형태의 모티브는 韓船의 構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행주형<sup>11)</sup>으로 일컫어지는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으로 이 행주형은 사람과 물산 및 금은보화를 싣고 있는 것으로 부를 상징하는 풍수형에 해당하는데 행주형은 물에 흘러가는 배의 모양보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이 힘이 있고 모든 면에서 좋다고 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행주형에 해당하여 굳이 風水地理的인 보완이 필요치 않은 강릉읍성이나 안동읍성의 경우에 반해 고현성이나 영산읍성은 입지한 지형의 風水的인 약점을 보완하고 고을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염원에 따라 그 축조방향에 있어서도 동쪽과 북쪽으로 배가 떠나는 형국으로서 힘있는 배의 형상을 하고 있는 邑城 전체의 평면형태가 주형으로 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 의해 축조된 주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은 안동읍성<sup>12)</sup>을 제외하고는 高麗 末에 土城으로 축조된 邑城을 석축화한 기존의 邑城의 형태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이때 당시에

10) 『경국대전』에는 경외(京外)의 주함(舟艦)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태조1년(1392)에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2품) 2명, 감(監: 종3품) 2명, 소감(少監: 종4품) 1명, 승(丞: 종5품) 1명, 겸승(兼丞: 종5품) 1명, 주부(注簿: 종6품) 3명, 겸주부(兼注簿: 종6품) 1명, 직장(直長: 종7품) 2명, 녹사(錄事: 종8품) 2명 등이다. 태종3년(1403) 사재감(司宰監)에 병합되었다가, 세종14년(1432년) 병선(兵船) 제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사수색(司宰色)으로 부활되었다. 세종18년(1436)에는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개편되고, 세조12년(1466년) 전함사(典艦司)로 그 명칭이 고정되었다.

11) 행주형은 삼면이 강이나 개천으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 행주형 마을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요 도시로는 나주, 청주, 북한의 평양 등을 꼽을 수 있다. 행주형은 배 모양의 지형이므로 키, 돛대, 닻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아주 좋은 명당으로 치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도 좋은 땅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것들을 연상시키는 자연물이 없을 경우 인위적으로 세워놓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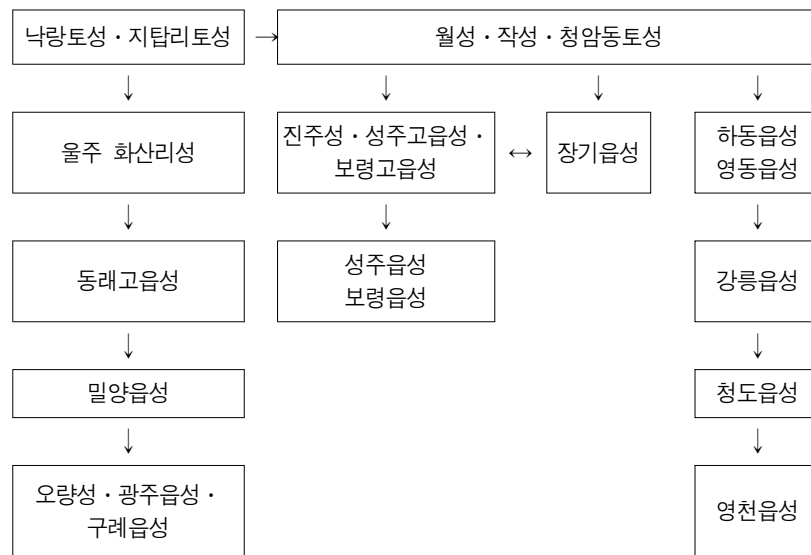
12) 林承佑, 1999, 『朝鮮時代 安東邑城 研究』, 安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9쪽.

신축된 읍성에서 확인되고 있어 역시 朝鮮前期에 들어서 유행하였던 하나의 축성패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明宗朝에 건조된 板屋船이 운용되기 이전에 朝鮮前期에 사용된 우리나라 船舶인 韓船의 경우에는 전면이 좁고 후면이 넓은 형태로 좌우가 약간 만곡하여 볼록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고현성을 비롯한 상기에 언급한 邑城 및 鎭城들의 형태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주형 평면형태의 모티브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던 韓船의 構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IV식인 제형은 前時代인 高麗時代와 그 이전시기부터 축조되어 있던 版築土城을 朝鮮 開國 이후 石築化로 전환하거나 邑城을 신축시 그 이전에 축조된 古邑城 및 山城의 평면형태를 계승한 형으로 南海岸地域에서 제형 평면형태의 양상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대별된다.(표4 참조)

<표4>를 살펴보면 제IV식인 제형은 三國時代 이전 낙랑토성과 지탑리토성의 평면형태를 모티브로 三國時代 경주 월성, 청암동 토성, 영천 작성 등과 같이 저지성 구릉에 초승달 모양으로 定型化 된 형태로 변화한다.<sup>13)</sup>

<표 4> 梯形 위곽형태의 흐름



13) 閔德植, 1994, 『三國時代 以前の 城郭에 관한 試考』, 韓國上古史學報 16, 254쪽.

필자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성곽의 기원을 토성에 두고 그 평면형태의 흐름을 추론하여 성곽 축조 양상의 시간적 흐름을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제형의 경우는 이미 三國時代 이전 時期부터 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제형은 초기의 體城一部 突出形 方形土城인 낙랑토성과 지탑리토성에 기원을 두고 출발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앞서에 언급한 월성, 작성으로 변화하는 IV-A식과 울주 화산리토성으로 변화하는 IV-B식으로 세분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IV-A식으로 낙랑토성과 지탑리토성과 같은 體城一部 突出形 方形土城에서 경주지역에 위치한 월성이나 작성과 같이 저지성 구릉에 초승달모양 내지 활이 만곡한 것과 같은 形態로 변화하다가 다시 세가지의 소형식으로 세분하여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A-1 소형식의 경우에는 전단계의 유형을 계승하여 동일한 평면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邑城으로는 진주성과 성주고읍성, 보령고읍성이 해당한다. 다시 이 단계를 넘어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주읍성과 보령읍성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IV-A-2 소형식의 경우에는 월성이나 작성의 평면형태가 내부를 확장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읍성이다. 세 번째 IV-A-3 소형식은 朝鮮 前期 太宗 17년에 초축 되는 하동읍성을 필두로 영동읍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IV-A-3식의 경우는 초기의 體城 一部 突出形의 突出部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邑城 평면형태는 전체적으로 방형에 가깝게 축조되고 있다. 또한 다음단계에서 확인되는 邑城의 경우는 강릉읍성을 거쳐 청도읍성에서 영천읍성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유형인 IV-B식은 統一新羅時代 축조된 有似版築土城인 蔚州 華山里城을 거쳐 高麗時代 版築土城인 동래고읍성과 朝鮮時代 밀양읍성을 거치면서 평면 전체 형태에 있어서는 방형에 가깝게 변화하고, 體城部의 각 곡선형 구간은 직선형의 체성부의 형태로 이행되어 가는 양상으로 변화한다. 특히 거제 오랑성과 광주읍성, 구례읍성에 이르러서는 곡선형의 體城部는 흔적만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體城部의 곡선화는 퇴화하고 직선화가 이뤄진다. 이 제형의 경우에는 신축되는 邑城에서도 확인되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朝鮮 時代의 前時代나 그 以前의 時代에 축조되고 사용되었던 版築土城 및 土石混築城에 해당하는 성곽을 석축으로 개축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朝鮮 前期 沿海邑城 가운데 일부는 축조재질상 石築城으로 축조되었으나 版築土城 및 土石混築城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제형 평면형태의 채용과 더불어 이전시기 版築土城에서 확인되는 土城的 요소의 흔적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圖 8. 제형으로 축조된 고읍성 사례

이와 같은 근거로 太宗 17年(1417)에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前時代의 版築土城의 基壇部의 축조수법인 斜直線基壇과 體城部 폭 3.5m의 협축성벽, 지대석이 없이 기단부를 조성하고 體城部와 직교하는 階段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축조수법 가운데 사직선기단의 경우는 목천토성<sup>14)</sup>, 사산성<sup>15)</sup>, 신

금성<sup>16)</sup>, 회진토성<sup>17)</sup>을 비롯한 백제지역의 土城 뿐만 아니라 경남지방의 울주 화산리성<sup>18)</sup>, 마산 회원현성<sup>19)</sup>, 사천 선진리성<sup>20)</sup>, 당감동성<sup>21)</sup>, 동래고읍성<sup>22)</sup> 등 高麗時代 이전부터 高麗 末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기단석축형 版築土城의 흔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폭 3.5m의 體城部 경우는 體城部를 계단식으로 축조하는 朝鮮 前期의 축조수법과는 다른 수법으로 이 험축성벽에 덧대어서 계단식으로 체성부가 축조되고 있어 朝鮮 前期에 沿海邑城의 축성규식이 정해지기 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 內壁에 축조된 體城部와 직교하는 계단지는 강릉읍성의 석축성벽 이전에 축조된 版築土城의 내벽에 덧대어져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어 판축토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體城部에 직교하는 계단시설은 마산 회원현성의 내벽에 4m 간격으로 體城部와 직교하게 덧대어져 있는 석축열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어 版築土城의 축조수법이 계속적으로 朝鮮 前期 沿海邑城의 축조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동지역의 沿海邑城인 강릉읍성 역시 평면형태가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축조시기는 대략 高麗 末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후 朝鮮 文宗朝에 이르러 高麗 末에 축조된 土城의 內外壁에 석축을 덧대어 석축화를 실시하고 中宗朝에 이르러 다시 개축되었다. 또한 그 축조수법에 있어서는 高麗 末에 축조된 版築土城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體城部와 직교하게 치석된 돌을 이용하여 계단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벽 축조수법의 경우 할석과 강돌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역시 4m 간격으로 木柱가 설치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마산 회원현성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이 가운데 계단지의 경우는 하동읍성 내벽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상호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高麗時代 이전에 축조된 蔚州 화산리성의 경우 유사판 축토성으로 그 평면형태가 제형이고 木柱의 간격이 3.8-4m로 강릉읍성이나 회원현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직교하는 계단지의 형태역시 강릉읍성, 회원현성,

14) 忠南大學校博物館, 1984, 『木川土城』.

15)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86, 『稷山 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16) 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신금성』.

17) 全南大學校博物館, 1995, 『會津土城 I』.

18) 심봉근, 1990, 『蔚州 華山里城址』, 古蹟調査報告書 第十六冊, 東亞大學校博物館.

19) 심봉근, 『마산 자산성지』, 1995,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學研文化社.

20) 安城賢, 2003, 『泗川 船津里城에 대하여-築造手法 및 築造年代를 中心으로』, 『韓國城郭研究會 定期學術大會』, 韓國城郭研究會.

21) 羅東旭, 1996, 『堂甘洞城址 I』, 釜山廣域市立博物館,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研究叢書 第10冊.

22) 동의대학교박물관, 2006,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東義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12.

하동읍성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동읍성과 강릉읍성의 경우를 살펴 볼 때 高麗時代 版築土城에서 沿海邑城으로 그 축조수법 및 평면형태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IV. 연해읍성 규모와 호구수의 비교

##### 1. 읍성규모와 평면형태

沿海邑城의 평면형태와 성둘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沿海邑城의 경우, 성둘레가 대부분 3,000尺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인 沿海邑城의 성둘레 비해서는 조금 긴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형의 경우는 3,000尺의 基準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주형은 3,000尺을 기준으로 울산내상성과 함포내상성의 경우 그 둘레가 주형의 여타읍성들에 비해 조금 큰 편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원형과 제형에 비해서는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형의 경우에는 沿海邑城의 평면형태 가운데 가장 작은 성둘레를 가진 邑城들이 해당되고 있다. 즉 제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의 경우는 3,000척을 전후로 한 邑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海岸 沿海邑城의 경우는 김해읍성 및 울산내상성, 함포내상성과 같이 행정 단위체계에 있어 상위군현 및 군사지휘체계상 최상위급 지휘관이 위치하는 邑城의 평면형태는 주형과 방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邑城들은 <표5>에서 성둘레가 3,500尺 이상으로 南海岸 沿海邑城의 대부분이 3,000尺을 전후 한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크게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平面形態별 축조 시기에 있어서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太宗 17년에 축조된 하동읍성의 제형으로서 주형인 울산병영성과 동시에 축조되고 있다.

南海岸 沿海邑城의 경우는 제형이 가장 빠른 평면형태로 확인되고 아울러 주형 역시 동시기에 축조되고 있으며 朝鮮 前期 後半으로 갈수록 제형과 주형이 혼용되어 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방형 평면형태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위군현 및 군사지휘체계상 최상위급 지휘관이 위치하는 邑城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형적인 조건보다는 유교적 신분질서사회에 기초한 행정체계의 질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은 南海岸 沿海邑城의 평면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자연환경에 의한 것으로 평면형태가 대다수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환경결정론적

견해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南海岸 沿海邑城의 축조과정에 있어 平面形態가 결정되는 것은 자연환경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平面形態에 적합한 자연지형을 심정하여 축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朝鮮 前期에 중앙권력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는 축성사업이 단순히 국방의 문제 이외에도 유교적 신분질서 사회의 유지에 바탕을 둔 지방통제를 통한 왕권강化라는 당시 위정자들의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통일된 축성규식과 평면형태의 일관된 적용이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5> 최근 조사된 남해안 연해읍성의 현황

	읍성명	성둘레(尺)	높이	평면형태	해발고도	유형	부대시설				축조년대	축조유형
							치성	문지	여장	우물		
연 해 읍 성	하동읍성	2,943	8	계형	43~149	평산성	11	3	588		태종17년(1417)	신축
	울산병영성	3,732	13	주형	25~60	평산성	21	4	908	7	태종17년(1417)	신축
	기장읍성	3,197	15	주형	20~30	평산성	6	3	383	1	세종 7년(1425)	신축
	합포병영성	4,291	15	주형	30이내	평지성	12	4		5	세종12년(1430)	토성→석성
	김해읍성	4,683	15	방형	20 이내	평지성	20	4	931	28	세종16년(1434)	신축
	웅천읍성	3,514	15	방형	8~20	평지성	6	4	·	2	세종16년(1434)	신축
	장기읍성	2,980	12	계형	100이내	평산성	12	3	·	4	세종21년(1439)	신축
	남해읍성	2,876	10	방형	15~30	평지성	12	4	553	3	세종21년(1439)	신축
	사천읍성	3,015	11.5	계형	12~45	평산성	15	3	580	7	세종27년(1445)	신축
	동래읍성	3,090	15	원형	3~125	평산성	12	4	513	6	세종28년(1446)	신축
	고성읍성	3,524	15	주형	2~10	평산성	12	3	575	4	세종30년(1448)	신축
	고현읍성	3,038	13	주형	15~45	평산성	6	3	·	1	문종원년(1451)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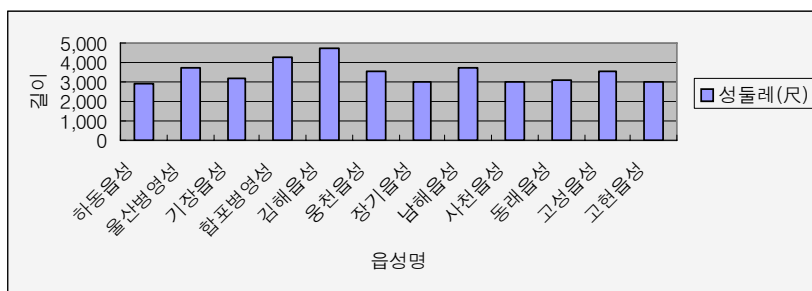


圖 9. 연해읍성의 성둘레

\*<표5>의 연해읍성 성둘레를 도식화

반면에 內陸邑城의 경우 방형은 沿海邑城과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즉 언양읍성의 경우만 3,000尺을 조금 넘을 뿐 나머지 경주읍성과 함안읍성의 경우는 4,000尺 이상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의 경우 역시도 성둘레가 4,000尺 이상의 대규모 城郭으로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圓形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형 연대	방 형 (I 식)		원 형 (II 식)		주 형 (III 식)		제 형 (IV 식)	
	I-A	I-B	II-A	II-B	III-A	III-B	IV-A	IV-B
1400			1. 당간동성지 2. 나주읍성 (태종4년, 1404)		1. 마산회원원성지 2. 기장읍성 (세종7년, 1425)		1. 진주성 (1379) 2. 하동읍성 (1417)	1. 울주하산리성 (6세기) 2. 동래고읍성 (13세기)
	1. 김해읍성 (세종18년, 1418) 2. 청의읍성 (세종5년, 1423)				3. 황포성지 (세종12년, 1430)		3. 장기읍성 (1439)	
	1. 김해읍성 (세종18년, 1434) 2. 남해읍성 (세종21년, 1439)				4. 기성읍성 5. 개운포성지 (세조5년, 1459)	2. 사동성 (세종9년, 1426~1448)	4. 양동읍성	
		3. 울진읍성 (세종17년, 1452)			6. 강진읍성 (상종8년, 1475)	3. 교성읍성 (세종30년, 1446)		3. 밀양읍성 (상종10년, 1479)
1500	3. 안양읍성 (1500)		3. 평해읍성 (1492)		7. 영산읍성 (상종8년, 1477)	4. 고한읍성 (문종1년, 1451)		
					8. 칠원읍성 (상종23년, 1492)		5. 강령읍성 (중종7년, 1512)	4. 오량성 (1500)
1550					9. 안동읍성 (1592)	5. 경상최수영성 (1514)	6. 영천읍성 (1591)	5. 성주읍성 (중종15년, 1520)
		4. 구원포진성 (상종21년, 1490)	4. 제주읍성 (영종20년, 1411년 수축 1585)		10. 금단 11. 소울 12. 기배방 1465 (상종16년, 1486) 1481 (상종17년, 1488)	6. 지세포진성 (상종21년, 1490)	7. 청도읍성 (선조23년, 1592)	6. 장주읍성
1600		5. 구원동포성 (상종21년, 1490)		1. 구포나포성지 (상종21년, 1490)			8. 육포진성 (상종21년, 1490)	

圖 10. 축조시기로 본 읍성 및 영진보성 위곽평면

內陸邑城에서는 안동읍성과, 영산읍성, 칠원읍성 등에서 주형 평면형태가 확인되고 있는데 1,595尺의 칠원읍성이 내륙읍성 중 가장 작은 성둘레를 가지고 있고 안동읍성은 3,000尺 전후인 2,947尺이고 영산읍성은 3,810尺으로 최근 조사된 內陸邑城의 평균 성둘레가 4,400尺 이상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소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南海岸 內陸邑城에서 성둘레가 비교적 짧은 것은 대부분 주형에 속하는 邑城으로서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새롭게 신축된 것들이다.

<표 6> 최근 조사된 영남 내륙읍성 현황

읍성명	성둘레(尺)	높이	평면형태	해발고도(m)	유형	부대시설				축조년대	축조유형
						치성	문지	여장	우물		
경주읍성	4,075	12	방형	·	평지성	26	4	1,155	80	우왕 4년(1378)	토성→석성
진주성	4,359		제형	50m내외	평지성	·	4	·	·	우왕 6년(1380)	신축
안동읍성	3,947	8	주형	97~101m	평산성	·	4	841	18	우왕 6년(1380)	신축
영산읍성	3,810	12.5	주형	25~28m	평산성	6	3	·	·	성종 8년(1477)	신축
칠원읍성	4,920	12.7	제형	50~85m	평지성	18	4	600	2	성종 8년(1477)	토성→석성
밀양읍성	4,670	9	제형	100~110m	평산성	·	3	1,580	4	성종10년(1479)	신축
칠원읍성	1,595	11	주형	35~87m	평지성	6	4	136	1	성종23년(1492)	토성→석성
언양읍성	3,064	13	방형	70~118m	평지성	12	4	834	4	연산군6년(1500)	토성→석성
함안읍성	5,160	13	방형		평산성	10	3	504	75	중종 5년(1510)	토성→석성
성주읍성	6,755	13	제형	35~65m	평지성	·	4	500	·	중종 15년(1520)	토성→석성
청도읍성	1,570(步)	5.5	제형	100~122m	평지성	4	3	600	·	선조 25년(1592)	토성→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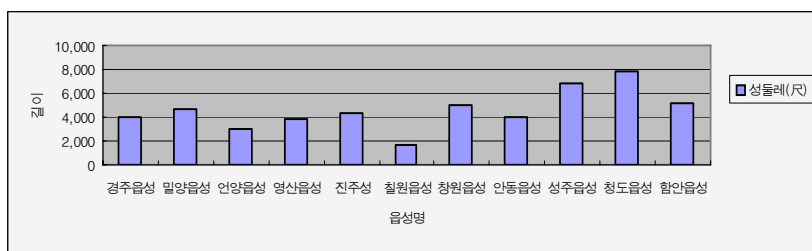


圖 11. 영남 내륙읍성의 성둘레

\* 영남내륙읍성 성둘레가 4000尺을 기준으로 대부분 상회하여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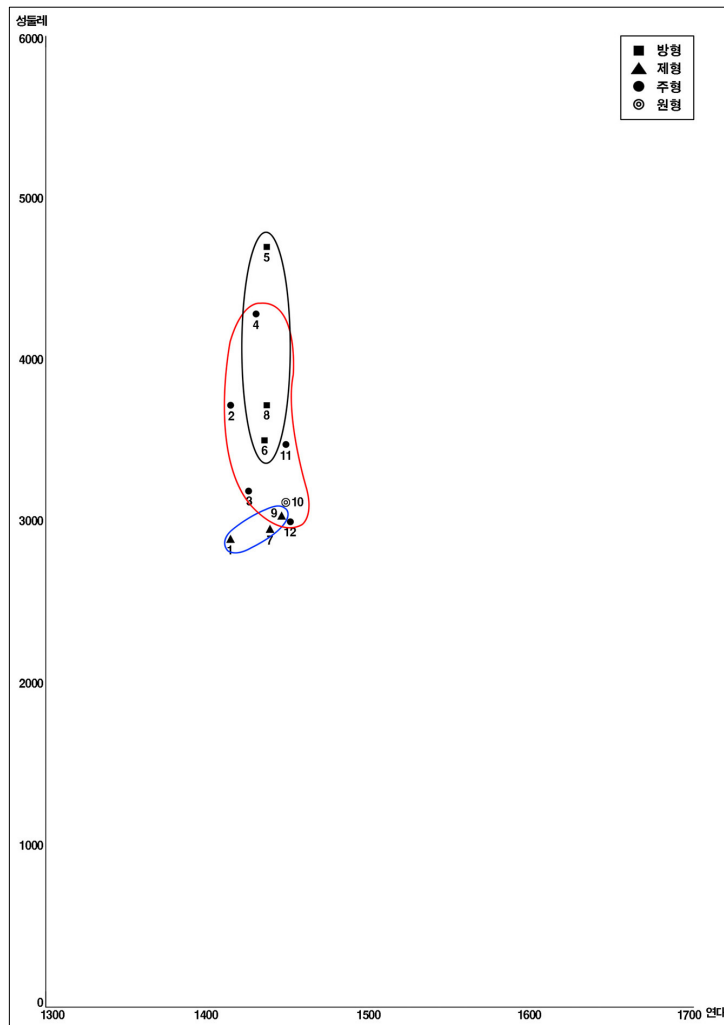
따라서 南海岸 內陸邑城의 경우는 沿海邑城과 달리 평면형태가 방형과 제형인 경우 주형에 비해 성둘레가 월등하게 길며 이러한 방형과 제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의 경우는 朝鮮時代 以前 時代부터 해당지역의 治所城으로 사용되던 것들로서 朝鮮時代 들어서는 慶尙道 地域의 행정체계에 있어 상위의 행정단위에 속하는 邑城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南海岸 內陸邑城의 경우에 평면형태는 상위의 행정단위 읍성일수록 방형과 제형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축조유형에 있어서도 以前 時代의 邑城을 확대 개수축한것으로 성둘레 4000尺 이상의 넓고 큰 平面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해안 내륙읍성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朝鮮 前期 前半에 비해 前期 後半으로 갈수록 平面形態에 상관없이 體城部의 둘레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지유형에 있어서, 방형의 경우는 모두 평지성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제형과 원형의 경우에는 평산성으로 축조되어 있고, 주형의 경우에도 역시 대부분 평산성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內陸邑城의 경우에는 이와는 좀더 다른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즉 진주성, 성주읍성, 청도읍성 등의 제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들의 경우, 平山城의 형태가 아닌 平地城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 외의 방형은 沿海邑城과 동일하게 平地에 축조되어 있으며 주형의 경우 역시 平山城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타지역의 邑城의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제형인 광주읍성, 강릉읍성의 경우는 平地에 축조되어 있고, 平山城으로는 진도읍성과 영동읍성이 있다.

<표 7> 최근 조사된 기타지역의 읍성 현황

읍성명	성둘레(尺)	평면형태	해발고도(m)	입지유형	축조년대	축조유형
광주읍성	8,253	제형	10m내외	평지성	.	토성→석성
황간읍성	1,646	주형	163~197m	평산성	공양왕2년(1390)	토성→석성
나주읍성	1,162步	원형	25~30m	평산성	태종 4년(1404)	토성→석성
무장읍성	2,639	방형	60m내외	평지성	태종17년(1417)	신축
면천읍성	3,235	원형	100m내외	평지성	세종21년(1439)	신축
진도읍성	3,400	제형	15~18m	평산성	세종22년(1440)	신축
남포읍성	2,467	방형	50m미만	평지성	세종28년(1446)	신축
강진읍성	6,082	주형	30~154m	평산성	성종 6년(1475)	신축
강릉읍성	3,720	제형	30m미만	평지성	중종 7년(1512)	토성→석성
영동읍성	2,410	제형	130~135m	평산성	.	토성→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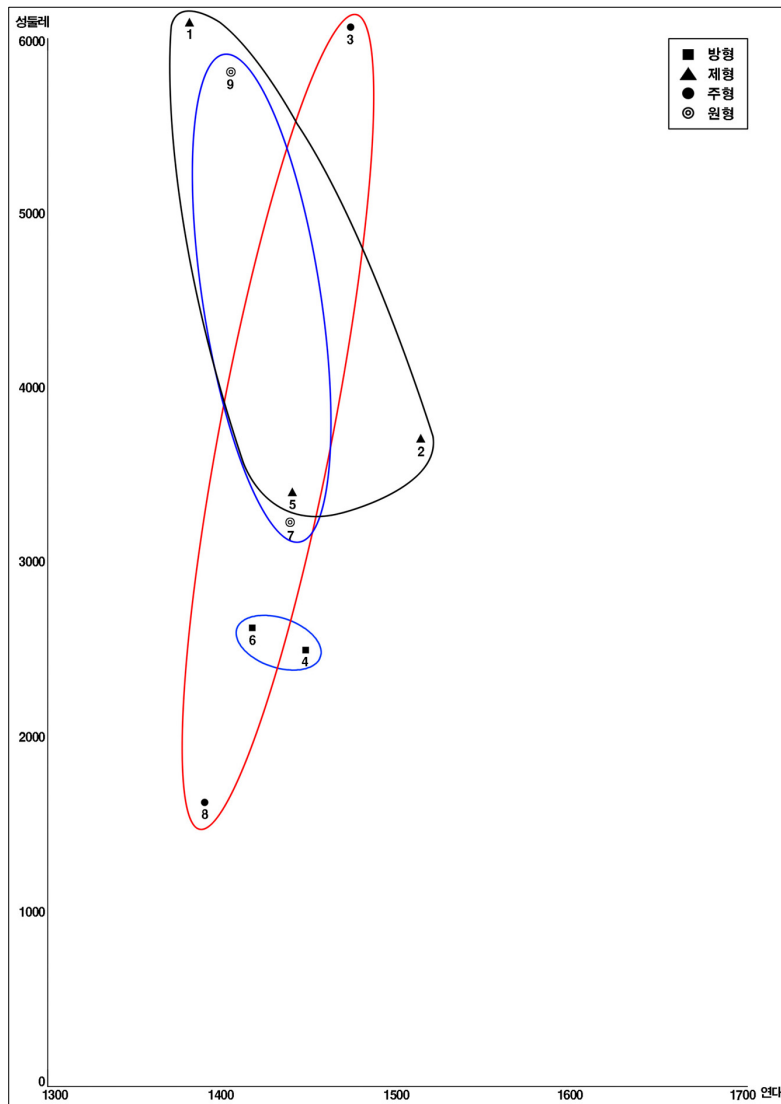
또 주형인 강진읍성, 황간읍성은 모두 平山城이며 무장읍성과 남포읍성은 방형, 나주읍성은 원형으로 축조되어 있어 영남내륙지방의 邑城의 현황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南海岸地域 沿海邑城의 경우는 제형의 평면형태로 축조된 邑城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성둘레 역시 內陸邑城 및 여타지역의 邑城에 비해 작다. 오히려 주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하동읍성 2. 울산병영성 3. 기장읍성 4. 합포성 5. 김해읍성 6. 웅천읍성 7. 장기읍성  
8. 남해읍성 9. 사천읍성 10. 동래읍성 11. 고성읍성 12. 고현읍성

圖 12. 연해읍성별 평면형태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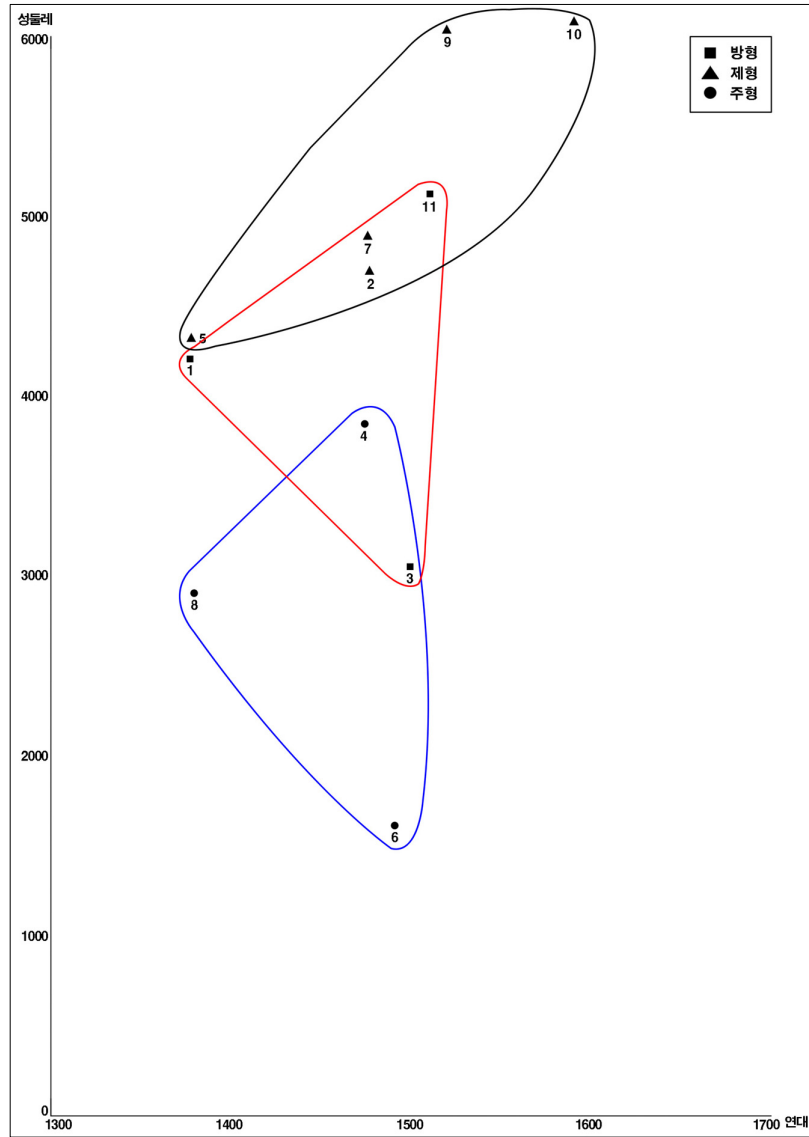
이것은 분명 內陸地域 邑城과 여타지역의 邑城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러한 연유는 內陸地域 邑城과 여타지방의 邑城의 경우에는 전시대의 土城 내지 石城을 재수축하여 사용하는 土城→石築化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體城部를 확대 및 개축한 것이다.



1.광주읍성 2.황간읍성 3.나주읍성 4.무장읍성 5.면천읍성 6.진도읍성 7.남포읍성  
8.강진읍성 9.강릉읍성 10.영동읍성

圖 13. 기타지역 읍성의 평면형태분포도

반면 沿海邑城의 경우에는 朝鮮의 開國 이후 축조되는 新築邑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때 新築邑城의 경우에는 입지를 고려한 지형조건에 더하여 유교적 신분질서의 확립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치



1.경주읍성 2.진주성 3.안동읍성 4.영산읍성 5.창원읍성 6.밀양읍성 7.철원읍성  
8.언양읍성 9.함안읍성 10.성주읍성 11.청도읍성

圖 14. 내륙읍성별의 평면형태 분포도

권의 확립 및 군사방어체계의 개편에 따른 행정단위의 위계질서에 맞는 邑城 體城部 평면형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풍수지리사상에 의한 邑城 의 취약한 風水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邑城 平面形態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風水地理에 있어 行舟形의 경우는 재화와 물산이 풍부하여 해당지역이 발전하는 형국임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현지세를 보호하는 차원의 “裨補”의 개념을 적용하여 배의 모양을 본뜬 邑城 형태를 축조함으로써 부족한 風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 2. 호구수와 평면형태

城郭을 축조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또 하나가 해당성곽에 입보하여 농성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인력에 따라 城郭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研究에서는 自然條件에 못지않게 성내의 수용인원 역시 城郭을 축조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 南海岸 沿海邑城의 平面形態 역시 이러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표8>은 최근 조사된 南海岸 沿海邑城의 戶口數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서 이것에 의거하여 沿海邑城 및 內陸邑城의 城둘레와 戶口數를 비교한 것을 圖式化한 것이 <표8>과 圖 15이고 圖 16, 17은 沿海邑城 및 內陸邑城의 성둘레/호구수를 平面形態별로 圖式化한 것이다.

<표 8> 남해안 연해읍성 호구수 현황

	읍성명	성둘레	호구수	위곽형태		읍성명	성둘레	호구수	위곽형태
	남 해 안 연 해 읍 성	웅천읍성	3514	15742		방형	남 해 안 내 륙 읍 성	경주읍성	4075
남해읍성		2876	25949	방형	언양읍성	3064		9410	방형
김해읍성		4683	35833	방형	함안읍성	5160		22841	방형
동래읍성		3090	28864	원형	진주성	4359		69495	제형
고성읍성		3524	41823	주형	창원읍성	4920		29452	제형
울산내상		3732	32382	주형	밀양읍성	4670		50901	제형
거제읍성		3038	30023	주형	성주읍성	6755		54365	제형
기장읍성		3197	12962	주형	청도읍성	7850		34186	제형
사천읍성		3015	17562	제형	안동읍성	2947		50603	주형
장기읍성		2980	8138	제형	영산읍성	3810		20412	주형
					칠원읍성	1595		11785	주형

<표8>을 살펴보면 南海岸地域 內陸邑城의 경우는 성둘레 4000尺 이상의 경우 진주, 밀양, 성주, 청도읍성이 해당되며 平面形態는 모두 제형으로 築造되어 있다. 또한 4000尺 이하의 邑城은 평면형태가 주형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영산읍성과 칠원읍성이 해당된다. 戶口數의 경우 30,000名 이상의 郡縣에 축조된 邑城의 平面形態는 제형이고 戶口數 20,000名 이하의 郡縣에 축조된 邑城의 平面形態는 주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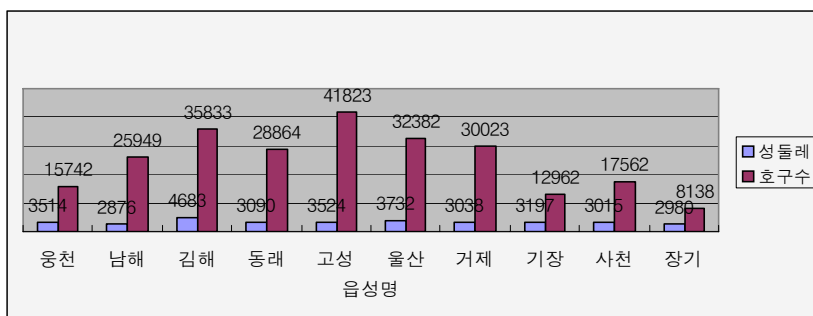


圖 15. 연해읍성의 성둘레/호구수

방형의 경우는 성둘레가 3,000尺 이상 4,000척의 중대형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戶口數에 있어서는 제형으로 축조된 邑城들에 비해서는 적다.

또한 <표8>에서는 南海岸 內陸邑城의 경우 방형과 제형으로 축조된 경주, 진주, 성주, 밀양, 안동읍성이 城둘레와 戶口數에 있어서도 여타의 군현의 邑城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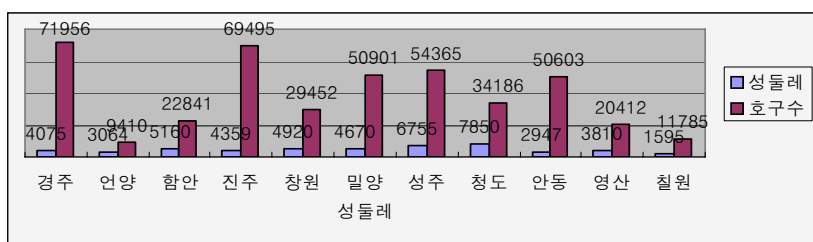


圖 16. 내륙읍성의 성둘레/호구수

그러므로 南海岸 內陸邑城은 행정단위체계 속에서 상위체계에 속하는 邑城 평면형태의 경우는 방형 및 대부분 제형으로 축조되어 있고 하위체계에 속하며 城둘레 및 戶口數에 있어서도 가장 작거나 적게 나타나는 邑城 平面

形態는 주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南海岸 內陸邑城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연유는 방형 및 제형으로 축조된 邑城의 경우는 과거 해당지역의 治所城인 土城을 石築化 한 것으로서 과거의 平面形態의 전통이 잔존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주형의 경우는 주로 新築되는 邑城에 축조되는 것으로 朝鮮時代 前期에 沿海邑城 築造에 유행하던 평면형태의 하나인 주형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成宗朝에 南海岸 沿海地域에 축조된 營鎭堡城 平面形態의 다수가 주형인 것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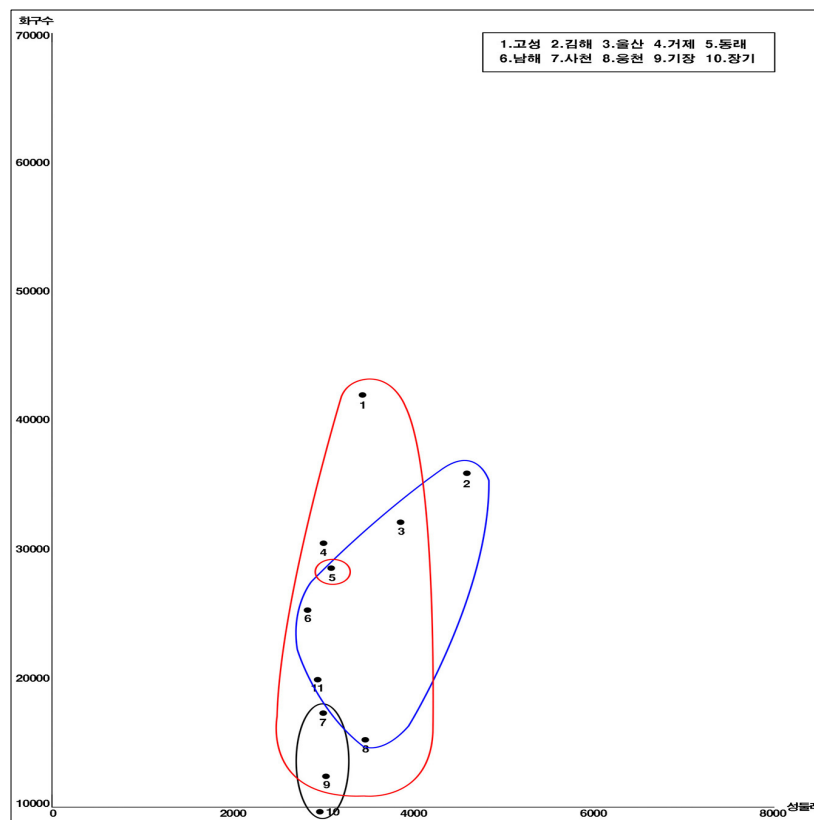


圖 17. 연해읍성 위곽형태별 호구수 (파란색:방형, 붉은색:주형, 검은색:제형)

반면에 沿海邑城은 城둘레 4000尺 이상의 경우인 김해읍성만이 해당되며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沿海邑城의 경우는 3000尺을 전후한 邑城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平面形態는 주형과 방형, 제형이 혼용되어 축조되어 있다. 戶口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邑城이 축조된 郡縣의 경우 30,000名 이상을 넘는 郡縣은 10개소 가운데 4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30,000名부

터 그 이하에 해당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30,000名 이상의 戶口數를 가진 郡縣에 축조된 邑城의 平面形態는 방형 1개소와 주형 3개소로 주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內陸邑城에서 제형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圖17참조)

이와 함께 沿海邑城에서는 제형의 平面形態 채택이 소수에 불과한데 하동읍성과 사천읍성, 장기읍성이 해당한다. 이러한 제형은 성둘레에 있어서도 3000尺을 전후하고 있으며 戶口數에 있어서도 20,000名 이하에 해당하는 郡縣이다. 따라서 비교적 沿海邑城 가운데서도 중소형에 속하는 邑城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內陸邑城의 제형과 비교하여서는 그 규모가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內陸邑城의 제형 읍성의 경우는 모두 土城→石築化한 邑城인 것에 반해 沿海邑城의 제형 읍성은 모두 신축된 邑城들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형 평면형태를 채택한 邑城 가운데 하동읍성의 경우는 평면형태가 제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初築年代가 太宗 17年이라는 비교적 朝鮮開國 初리는 점으로 이 시기는 以前時代인 高麗時代와의 문화적 연결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版築土城의 築造手法 흔적과 高麗時代 및 그 以前時代부터 유행하였던 제형을 石築邑城 축조시에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南海岸 沿海邑城에서는 內陸邑城에서 나타나는 행정단위체계 속에서 상위체계에 속하는 邑城 平面形態가 방형 및 대부분 제형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에 반해 邑城 平面形態는 주형으로 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연유는 방형 및 제형으로 축조된 邑城의 경우는 과거 平面形態의 전통이 잔존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주형의 경우는 주로 신축되는 邑城에 축조되는 것으로 朝鮮時代 前期에 沿海邑城 축조에는 주형이 유행하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沿海邑城의 築造에 사용된 주형의 규식은 成宗朝와 中宗朝까지 계속되는 內陸邑城의 축조와 南海岸 營鎭堡城의 축조에 있어 그 平面形態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營鎭堡城의 평면형태로 다수 채택하여 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주형의 전통은 沿海邑城에 이어 南海岸 營鎭堡城의 축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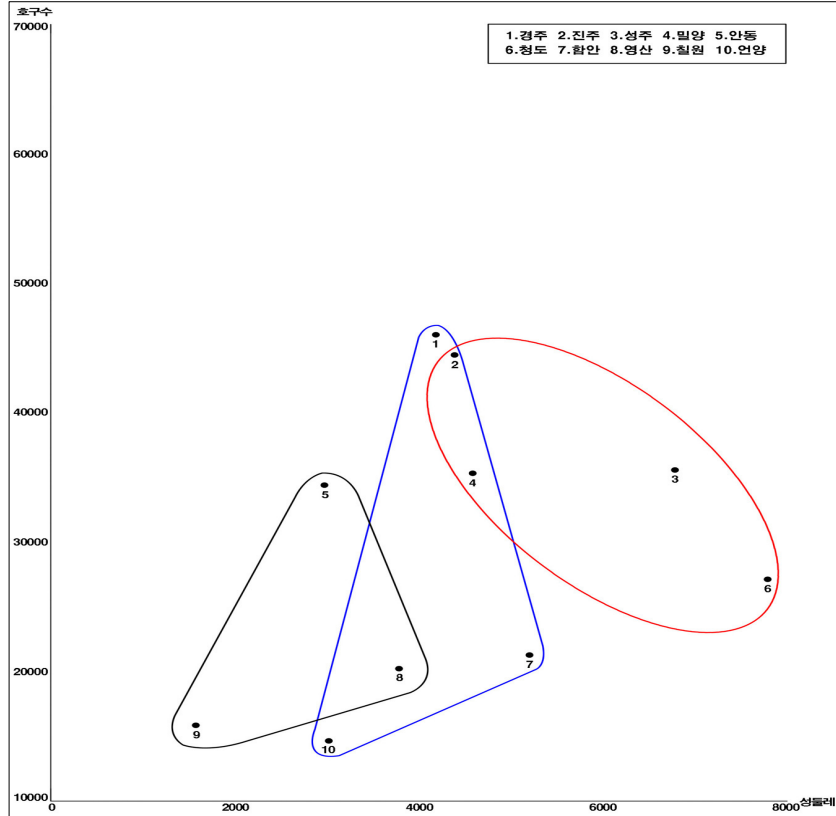


圖 18. 내륙읍성의 위곽평면형태별 호구수 (파란색: 방형, 붉은색: 제형, 검은색: 주형)

## V. 맺음말

南海岸 沿海邑城이 축조되기 이전에 축조된 마산 회원현성, 부산 당감동성, 울주 화산리성, 동래고읍성의 경우는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와 朝鮮 初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의 治所城으로 사용된 것으로 邑城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平面形態는 前時期의 治所城에 해당하는 위의 城郭들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南海岸地域에 축조된 沿海邑城의 平面形態는 크게 방형, 원형, 주형, 제형의 4형식으로 나누어진다. 방형의 平面形態를 갖춘 沿海邑城의 경우는 慶尙道 지역의 지방 행정 위계상 최상위에 속하는 都護府의 설치와 三浦의 하나로 日本과의 대외창구로서의 역할을 가진 薺浦에 인접하여 내외국인의 입

출입이 활발한 지역적 특성과 南海岸地域 沿海의 내해와 외해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의 중심에 위치하는 점과 경부축선에 위치하는 점이 고려된 축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형은 실제 三國時代와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 前期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원형의 평면형태를 갖춘 城郭은 거의 없으며 현실세계에서 築造가 양성화되기보다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邑城의 관념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 작업에 다수 사용되었던 것으로 실제 築城의 예가 극소수에 불과한 연유라고 하겠다. 대체로 그 初築 年代 내지 築城 年代가 高麗 末과 朝鮮時代 太宗朝에 집중되고 있어 時期的으로 高麗에서 朝鮮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축성에 사용된 平面形態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정형화된 원형 平面形態로의 축조가 장타원형의 축조보다는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형 평면형태는 독특한 형식으로서 제Ⅲ식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형 형태의 평면형태가 사용된 이유는 지형적인 조건보다는 부족한 방어시설과 방어시 사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성벽 體城部의 축조시 적절한 만곡과 돌출을 실시하고 방어전면을 좁혀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韓船의 구조를 體城部의 축조형태에 차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후 이러한 韓船의 構造는 成宗朝를 거쳐 16世紀末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기능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으로 퇴화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주형의 범주에 속하는 邑城 및 營鎮堡城에서는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주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城郭들은 太宗 17年(1417)인 15世紀初에서 출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世宗朝에서 成宗朝에 해당하는 15世紀末에 이르는 시기로 이때 당시에 유행한 平面形態의 하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형 평면형태가 邑城축조에 사용된 배경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의 경우는 世宗 18年(1436)에 戰船의 建造와 修理를 포함한 전반을 담당하던 修城典船色이 船舶 뿐만 아니라 築城에 관련된 事務도 같이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兵船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축적된 圖面과 技術力이 邑城의 築城圖面 작성에도 일정부분 반영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연유로 주형의 平面形態를 가진 邑城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行舟形으로 일컫어지는 風水地理思想의 영향으로 이 行舟形은 사람과 물산 및 금은보화를 싣고 있는 富를 상징하는 風水形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이 발전하는 興國임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현지세를 보호하는 차원의 “비보”의 개념을

적용하여 邑城이 입지한 지형의 風水的인 약점을 보완하고 고을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염원에 따라 그 축조방향에 있어서도 물을 거슬러 오르거나 넓은 바다로 떠나는 힘있는 배의 형상을 본뜬 平面形態를 형상화 한 것이 주형으로 邑城이 축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주형의 平面形態를 가진 邑城의 경우에는 안동읍성을 제외하고는 高麗 末에 土城으로 축조된 邑城을 石築化한 기존의 邑城의 형태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이때 당시에 新築된 邑城에서 확인되고 있어 역시 朝鮮 前期에 들어서 유행하였던 하나의 축성패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형은 以前時代인 高麗時代와 그 이전시기부터 축조되어 있던 版築 土城을 朝鮮 開國 이후 石築化로 전환하거나 邑城을 新築시 그 이전에 축조된 古邑城 및 山城의 平面形態를 계승한 형으로 南海岸地域에서 제형 平面形態의 양상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三國時代 以前 時期부터 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沿海邑城에 축조된 제형의 경우에는 新築되는 邑城도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朝鮮時代의 以前 時代나 그 이전의 時代에 축조되고 사용되었던 版築土城 및 土石混築城에 해당하는 城郭을 石築으로 개축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하동읍성과 강릉읍성의 경우처럼 石築邑城이라 할지라도 곳곳에서 土城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高麗時代 版築土城에서 하동읍성과 같은 朝鮮 前期 石築邑城으로 그 축조수법 및 평면형태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南海岸 沿海邑城의 경우는 김해읍성 및 울산내상성, 합포내상성과 같이 행정단위체계에 있어 상위군현 및 군사지휘체계상 최상위급 지휘관이 위치하는 邑城의 平面形態는 주형과 방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邑城들은 城둘레가 3,500尺 이상으로 南海岸 沿海邑城의 대부분이 3,000尺을 전후 한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크게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南海岸 沿海邑城의 平面形態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太宗 17년에 축조된 河東邑城의 제형으로서 주형인 울산병영성과 동시에 축조되고 있다. 따라서 南海岸 沿海邑城의 경우는 제형이 가장 빠른 평면형태로 확인되고 아울러 주형 역시 동시기에 축조되고 있으며 朝鮮 前期 후반으로 갈수록 제형과 주형이 혼용되어 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방형 平面形態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위군현 및 군사지휘체계상 최상위급 지휘관이 위치하는 邑城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형적인 조건보다는 유교적 신분질서사회에 기초한 행정체계의 질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南海岸 沿海邑城은 朝鮮 開國 이후에 新築되는 邑城들이 대부분이며 朝鮮 前期 後半으로 갈수록 沿海邑城의 경우 平面形態에 상관없이 城 둘레가 3,000尺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沿海邑城의 平面形態가 결정되는 것이 自然環境에 의한 것으로 平面形態가 대다수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환경결정론적 견해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南海岸 沿海邑城의 축조과정에 있어 平面形態가 결정되는 것은 自然環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平面形態에 적합한 자연지형을 심정하여 축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朝鮮 前期에 中央勸力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는 축성사업이 단순히 國防상의 문제 이외에도 유교적 신분질서 사회의 유지에 바탕을 둔 지방통제를 통한 왕권강화라는 당시 위정자들의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통일된 축성규칙과 평면형태의 일관된 적용이 南海岸 沿海邑城에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立地類型에 있어서 방형의 경우는 모두 平地城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제형과 원형의 경우에는 平山城으로 축조되어 있고, 주형의 경우에도 역시 대부분 平山城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內陸邑城인 진주성, 성주읍성, 청도읍성 등의 제형 평면형태를 가진 邑城들의 경우, 平山城의 형태가 아닌 平地城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 외의 방형은 沿海邑城과 동일하게 平地에 축조되어 있으며 주형의 경우 역시 平山城으로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南海岸地域 沿海邑城의 경우는 제형의 平面形態로 축조된 邑城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城둘레 역시 內陸邑城 및 여타지역의 邑城에 비해 작다. 오히려 주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명 內陸地域 邑城과 여타지역의 邑城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러한 연유는 內陸地域 邑城과 여타지방의 邑城의 경우에는 전시대의 土城 내지 石城을 再修築하여 사용하는 土城→石築化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體城部를 확대 및 개축한 것인데 반해 沿海邑城의 경우에는 朝鮮의 開國 이후 축조되는 新築邑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때 新築邑城의 경우에는 立地를 고려한 지형조건에 더하여 유교적 신분질서의 확립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치권의 확립 및 군사방어체계의 개편에 따른 행정단위의 위계질서에 맞는 邑城 體城部 平面形態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風水地理思想에 의한 邑城의 취약한 風水의 氣運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邑城 平面形態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城郭을 축조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또 하나가 해당성곽에 입보하여 농성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인력에 따라 城郭의 平面形態

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沿海邑城 가운데 30,000名 이상의 戶口數를 가진 郡縣에 축조된 邑城 平面形態가 방형 1개소와 주형 3개소로 주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內陸邑城에서 제형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제형 平面形態를 가진 邑城 가운데 하동읍성의 경우는 初築 年代가 太宗 17年이라는 비교적 朝鮮 開國 初라는 점으로 이 시기는 전시대인 高麗時代와의 文化的 연결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時期이므로 版築土城의 축성수법의 흔적과 高麗時代 및 그 以前時代부터 유행하였던 제형을 石築邑城 축조시에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南海岸 沿海邑城은 內陸邑城이 상위행정단위에 속하는 邑城의 平面形態가 방형 및 대부분 제형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에 반해 주형으로 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朝鮮時代 前期에 沿海邑城 축조에는 주형이 유행하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南海岸 沿海邑城 역시 內陸邑城과 마찬가지로 방형 및 제형으로 축조된 邑城은 과거 平面形態의 傳統이 잔존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주형의 경우는 주로 新築되는 邑城에 축조되는 것에 있다. 이후 沿海邑城의 축조에 사용된 주형의 規式은 成宗朝와 中宗朝까지 계속되는 南海岸 營鎭堡城의 축조에 있어 그 平面形態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營鎭堡城에 그 平面形態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형의 傳統은 沿海邑城에 이어 南海岸 營鎭堡城의 축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沿海邑城은 平面形態의 비교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시기의 여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단일한 築城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南海岸 沿海地域이 大倭寇 最一線 戰略的據點으로서 그 軍事的인 技能으로 인해 國家로부터 엄격한 축성관리를 받으며 일관되게 築城事業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地形條件에 따라 邑城 平面形態가 決定되었다기 보다는 規式에 맞는 地形을 심정하여 정해진 邑城形態 가운데서 선택하여 邑城을 축조케한 제식적인 規式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투고일 2008년 1월 7일 |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일 | 게재확정일 2008년 2월 18일 ■

## 참고문헌

- 丁仲煥·沈奉謹, 「창원군내 성지조사보고」, 『석당논총』제1집, 1976.
-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市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1977.
- 丁仲煥, 「東萊邑城西將台·望月山頂建物址發掘調査報告書」, 東亞大博物館, 1979.
- 沈奉謹·金東鎬, 「梁山 專池里土城」, 東亞大學校博物館, 1983.
- 崔夢龍, 「高興鉢浦鎭城 發掘調査報告書」, 『白山學報』29, 1984.
- 夢村土城發掘調査團,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1985.
- 木浦大博物館, 「務安郡의 文化遺蹟」, 1986.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1, 1986.
- 沈奉謹, 「蔚山倭城·兵營城址」, 東亞大博物館, 1986.
- 木浦大博物館, 「新安郡의 文化遺蹟」, 1987.
- 馬山市, 「馬山慈山城址(會原城)地表調査報告書」, 1988.
- 木浦大博物館, 「長興郡의 文化遺蹟」, 1989.
-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慶尙左水營城址 地表調査報告書」, 1990.
- 沈奉謹, 「蔚州華山里城址」, 東亞大博物館, 1990.
- 木浦大學校博物館, 「康津 兵營城 發掘調査報告書」, 1991.
- 沈奉謹, 「巨濟 古縣城址」,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 慶州文化財研究所, 「長鬐邑城 地表調査報告書」, 1991.
- 李海濬·高龍圭, 「珍島邑城·鐵馬山城 地表調査報告書」, 木浦大學校博物館, 1992.
- 沈奉謹, 「馬山合浦城址基礎調査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1993.
- 東亞大學校 博物館, 「巨濟市 城址 調査報告書」, 1995.
-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조사중간보고」, 1995.
- 東亞大學校 博物館, 「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5.
- 沈奉謹, 「鎭海 龜山城址」,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학연문화사, 1995.
- 公州大學校博物館, 「所斤鎭城」, 1996.
-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安羅國古城」, 유적답사자료 총서1집, 1996.
- 羅東旭, 「金丹串堡城址發掘調査概報」, 『博物館研究論集』6, 1997.

統營市, 『唐浦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7.

順天大學校博物館, 『順天 劍丹山城斗 倭城』, 1997.

國立扶餘博物館, 『舒川長岩鎮城』, 『國立扶餘博物館古蹟調查報告』, 1997.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永同邑城 地表調査報告書』, 中原文化研究叢書 第1冊, 1997.

釜山大學校博物館, 『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8.

沈奉謹, 『靈山邑城址地表調査報告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大邱大學校博物館, 『蔚珍郡 城址遺蹟 地表調査報告書』, 學術調查報告 第十四冊, 199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 『토지박물관학술조사총서』제1집, 1998.

沈正輔·李達勳·姜鍾元, 『沔川邑城』, 大田産業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唐津郡, 1999.

沈奉謹·李東注, 『舊所乙非浦城址地表調査報告書』,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釜山廣域市立博物館, 『金海 東上洞 소방도로 개설 구간내 金海邑城址 試掘調査』, 博物館研究論集 7, 1999.

華城郡·한신大學校博物館, 『水原 古邑城』, 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12冊, 2000.

釜山廣域市立博物館, 『慶尙左水營城址』, 2001.

福泉博物館, 『東萊邑城址』, 福泉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3輯, 200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熊川邑城』,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調査研究報告書 第1冊, 200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固城邑城址 地表調査報告書』,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調査研究報告書 第3冊, 2001.

順天大學校博物館·靈光郡, 『靈光 法聖鎮城』, 順天大學校博物館學術資料叢書 第三十冊, 2001.

밀양대학교박물관, 『密陽邑城』, 2002.

國立晉州博物館·晉州市, 『晉州城 矗石樓 外廓 試掘調査報告書』, 2002.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星州郡, 『星州邑城地表調査報告書』, 學術調查報告 第17冊, 2002.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韓國의 近世山城』, 中原文化研究叢書

- 第34冊, 2002.
- 東亞大學校博物館, 『彥陽邑城 綜合整備復元을 위한 學術調查報告書』, 2003.
- 慶州市·大邱大學校博物館, 『慶州 鵲城 地表調查報告書』, 學術調查報告, 第三十七冊, 2003.
- 公州大學校博物館·保寧市, 『藍浦邑城』, 2003.
- 진도군·전남대학교박물관, 『진도 금갑진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3.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河東邑城 I』, 學術研究報告書 第15冊, 2004.
- 俞炳一·裴恩景,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學術研究叢書 第3輯, 2004.
- (財)湖南文化財研究院·羅州市, 『羅州邑城 II』, 湖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查報告 第28冊, 2004.
- 강진군·목포대학교박물관, 『康津邑城』, 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116책, 2004.
- (財)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兵營城鎮海樓』, 2004.
- 慶南文化財研究院, 『統營城址 西鋪樓 發掘調查 結果報告』, 2004.
- (財)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兵營城』, 2005.
- 慶南發展研究院歷史文化센터, 『巨濟玉浦鎮城』, 慶南發展研究院歷史文化센터 調查研究報告書 第 36冊, 2005.
- 昌原市·慶南文化財研究院, 『昌原邑城址精密地表調查報告書 및 邑城復原에 관한 研究』, 2005.
- 清道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清道邑城精密地表調查報告書』, 2005.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古縣邑城』,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調查研究報告書 第 42冊, 2006.
- 慶南文化財研究院, 『釜山地下鐵 3號線(壽安停車場) 建設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查 2次 現場說明會 資料』, 2006.
- 江原文化財研究所,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調查 39冊, 2006.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巨濟 廢王城 文化遺蹟 試掘調查 報告書』, 2006.
- 湖南文化財研究院, 『高敞 茂長邑城 I』, 2006.
- 심봉근·이동주·신인주·박희정, 『固城邑城址』, 東亞大學校博物館, 2006.

- 韓國文物研究院,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06.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馬山 合浦城址』, 2006.
- 釜山廣域市 東萊區, 『東萊邑城址 復元綜合計劃』, 2006.
- 永同郡·中原文化財研究院 『永同 黃澗邑城 地表調查報告書』, 調查報告叢書, 第28冊, 2006.
- 咸安郡·慶南文化財研究院, 『漆原邑城』, 學術調查研究叢書 第45輯, 2006.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河東邑城Ⅱ』, 學術研究報告書 第39冊, 2006.
- 東國文化社影印, 『增補文獻備考』, 1971.
- 世宗大王記念事業會, 『世宗實錄地理志』, 1973.
- 國史編纂委員會影印, 『輿地圖書』, 1973.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國大出版部, 1973.
- 반영환, 『韓國의 城郭』,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78.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증보문헌비고』 여지고1,2,3, 1978.
- 亞細亞文化社影印, 『東國輿地勝覽』, 1983.
- 文化財管理局, 『全國 邑城調查』, 1985.
- 金東旭, 『水原城』, 『빛깔있는 책들』102-5, 대원사 1989.
- 金在瑾, 『韓國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 沈奉謹,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學研文化社, 1995.
- Charles L. Redman, 최몽룡 역, 『문명의 발생-근동 지방의 초기 농경민에서 도시 사회까지』, 대우학술총서, 1995.
- 沈正輔,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1995.
- 松本諒士, 『築城』, 理工學社, 1996.
- 釜山廣域市 水營區, 『慶尙左水營城址 整備基本計劃』, 1999.
- 柳在春,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국학자료원, 1999.
- 余昊奎, 『高句麗城Ⅱ』遼河流域篇, 『韓國古代城郭2』, 國防軍史研究所, 1999.
-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민족문화학술총서23』, 도서출판 혜안, 2001.

- 경기문화재단, 『수정국역 화성성역의례』, 기전문화예술총서 10, 2001.
- 차용걸·최진연, 『한국의 성곽』, 눈빛, 2003.
- 유재춘,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이건하, 『朝鮮時代の 日本城』, 국학자료원, 2003.
- 한스 페터 폰페쉬케, 『성곽』, 도서출판 정담, 2004.
- 沈正輔,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4.
- 白種伍, 金炳熙, 申泳文, 『韓國城郭研究論著總攬』, 2004.
- 沈奉謹, 『韓國文物의 고고학적 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5.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尹武炳·成周鐸,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第8輯, 1977.
- 李元根, 『三國時代 城郭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0.
- 孫永植, 『三國時代의 城과 古代城의 比較』, 文化財管理局, 1983.
- 김철수, 『한국 성곽 도시의 형성·발달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4.
- 李相敦, 『朝鮮中期 邑城에 關한 研究』, -與地圖書의 分析을 中心으로-, 1984.
- 유재원, 『삼국사기 축성기사의 분석』, 『호서사학』12, 1984.
- 김기웅, 『고구려 산성의 특성에 관한연구』, 『고고민속논문집』, 1984.
- 車勇杰, 『朝鮮 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韓國史論』7, 國史編纂委員會, 1985.
- 李宇泰, 『韓國 古代의 尺度』, 『태동고전연구』 1, 1985.
- 李在赫, 『朝鮮時代 忠淸海岸地域의 城郭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6.
- 孫永植, 『韓國城郭의 研究』,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 車勇杰, 『高麗末·朝鮮前期 對外關防史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沈奉謹, 『朝解前期 築造 兵營城에 대하여』, 『石堂論叢』제15집, 1989.
- 沈奉謹, 『馬山合浦城址』, 『釜山女大史學』제10·11합집, 1993.
- 徐敏祥, 『全羅左水營城에 대한 復元的 考察』, 『全羅左水營城의 歷史와 文化』, 順川大學校博物館, 1993.
- 민덕식, 『三國時代 이전의 城郭에 關한 試考』, 『韓國上古史學報』, 16, 1994.
- 車勇杰·洪成均, 『百濟 城郭의 比較 研究試論』, 『百濟論叢』第5輯, 百

- 濟文化開發研究院, 1996.
- 나동욱, 「慶南地域의 土城 研究」, 『博物館研究論集』5,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博士學位請求論文, 1997.
- 공석구, 「高句麗城郭의 類型에 대한 研究」, 『한국상고사학보』26, 1998.
- 羅東旭, 「釜山地域의 城址에 關한 檢討」,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8.
- 林承佑, 「朝鮮時代 安東邑城 研究」, 安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9.
- 盧永九, 「朝鮮後期城制變化와 華城의 城郭史의 意味」, 『震檀學報』88, 震檀學會, 1999.
- 金明徹,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2000.
- 李日甲, 「南海岸地域 朝鮮時代 鎭에·堡에 關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2000.
- 이 진, 「사천만 연안에 축성된 성(城)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역사 지리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6권, 한국지역지리학회, 2000.
- 박의준, 「우리나라 남부지역 읍성지의 지형경관 분석-광주 읍성지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제36권, 2002.
- 玄南周, 「京畿 中西部地域 中世城郭 研究」, 亞洲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2003.
- 李日甲, 「하동읍성에 대하여」, 韓國城郭研究叢書2, 한국성곽학회, 2003.
- 양보경·민경이, 「慶尙北道 永川邑城의 空間構造와 그 變化」, 『문화역사지리』, 제144.
- 최원석, 「경상도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南海邑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제16권, 2004.6권, 2004.
-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도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경추, 「강릉읍성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제7권, 2004.
- 김기민, 「東萊 古邑城」, 韓國城郭研究 叢書 4, 한국성곽학회, 2004.
- 오승연, 「칠원읍성」, 韓國城郭研究 叢書 8, 한국성곽학회, 2005.
- 심중훈, 「거제 폐왕성 축성소고」, 韓國城郭研究 叢書 8, 한국성곽학회, 2005.
- 조형래·서치상, 「英祖初年 全州와 大邱邑城 築造工事 研究」, 大韓建築

學會論文集 통권197호, 2005.

김성진, 『부산 동래읍성』, 韓國城郭研究 叢書 7, 한국성곽학회, 2005.

沈正輔, 『풍납토성(風納土城)과 중국 고대도성과의 비교연구』, 『중국고대도성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羅東旭, 『慶南地域 邑城과 鎭城의 試·發掘調査 成果』, 東亞文化 創刊號, (財)東亞文化研究院, 2005.

李日甲, 『합천 대야성의 고고학적 검토』, 韓國城郭研究叢書9, 한국성곽학회, 2006.

李日甲, 『巨濟 古縣邑城에 대한 研究』, 石堂論叢 第三十七, 東亞大學校石堂學術院, 2006.

Abstract

## A Study on the flat formation the Coastal Town Castle in the South Coast

Lee, il Gab

The flat formation found in the coastal town walls were succeeded and developed afterward and we can see them in Masan hoewonhyeon castle, which was governing castle before Joseon Dynasty period, Busan Danggamdong castle, Ulju whasanri castle, and Dongrae goeup castle. The flat formation in coastal town wall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largely as square, round, ark, and trapezoid shape.

As for location, the square shape was built on flat castle, the trapezoid and the round shapes were built on flat with mountain castle, and most of ark shape also was built on flat with mountain castle. In the case of coastal town walls in south coast, the town walls built with flat formation of trapezoid are few and the girth of the walls also smaller than that of land town and the others. Rather most of them had the ark shape. In the case of the land town walls and others, they were added or reconstructed to the precedent castle walls on the way of change working from soil walls to stone ones. However in the case of coastal town walls, most of them were built newly after opening Joseon Dynasty and then they were considered with the idea of establishing Confucian social status system and sovereign power of central government over local province and rank order of administrative unit accordant to reorganizing military defense system as well as their topographic condition. And also the reason that they had the new type of flat formation was to cover their weak energy said by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In the case of south coastal town walls, the trapezoid shape was the earliest flat formation and also the ark shape was made in the same period

but their formation became changed by combining both shapes as it went to the age of latter part of earlier Joseon Dynasty. And also in the case of the high governmental status' unit in South coastal town, their walls' flat formation had the ark shape. Therefore the ark shape can be said the popular pattern in coastal town walls in the earlier Joseon Dynasty.

Another thing to be considered in the flat formation of coastal town walls is that it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n who could enter together and its capacity to accommodation. Especially among the coastal town walls, the flat formation built in Gun and Hyeon with over 30,000 houses had the ark shape in majority.

Therefore as shown in the comparing flat formations, the coastal town walls had a single construction pattern comparing to the others in the same period and it seemed from its topographic condition. The area was the strategic base in forefront place against Japan so owing to its military function, the walls construction was proceeded with consistency and stern control by the nation. And there was a ritual rule to construct town castle walls by selecting land shapes suitable to the rule among arranged ones rather than determining the flat formation according to the topographic condition.

Key words : coastal town walls, square shape, round shape, ark shape, trapezoid shape, flat formation,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the number of houses